


돌봄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


일시 2023년 7월 21일(금) 14:00~17:30

장소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

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후원  방송문화진흥회

돌봄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

- 일시 : 2023년 7월 21일(금) 14:00~17:30
- 장소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 주최 : KWACS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사 : 홍지아(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경희대) 사회 : 조수선(대진대)
14:05~15:20	[발표 1]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 신정아(한신대) · 한희정(국민대)
	[발표 2] 재난의 시대, 돌봄 가치와 미디어의 역할 :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 정혜실(안산공동체미디어)
	[발표 3] 지속가능한 돌봄 - 기술 연결망에 관하여 - 채석진(조선대)
15:20~15:40	휴식
15:40~17:30	[종합토론] - 권지담(한겨레신문) - 백경흔(이화여대) - 이숙정(중앙대) - 이해수(옥천FM) - 장은미(서강대) - 정수경(국제법률경영대학원) (가나다순)
17:30	폐회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신정아(한신대)
한희정(국민대)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신정아·한희정

1. 서론

자본주의가 ‘저렴한 것’으로 취급하며 착취/수탈하는 일곱 가지 요소- 노동, 자연, 돈,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 가운데(Patel & Moore, 2017/2020) 돌봄은 단연 사회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치부된다. 돌봄과 돌봄 노동의 폄훼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돌봄은 대체로 여성적이며 “비생산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연관된 직업과 함께 평가절하되어 왔다. 돌봄의 위기는 지난 40년 동안 특히 심각해졌는데 이는 많은 나라가 수익 창출을 삶의 핵심 원리로 보편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은 단순히 더 오래된 평가절하의 역사를 이용해 불평등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또 심화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기간은 돌봄 현실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더라도 부실함을 넘어 폭력적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태 이상의 돌봄의 실천을 상상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돌봄은 인간 삶의 절대적인 필수조건임에도 철저히 주변화되어 있다. 트론토는 민주사회의 돌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관점과 상황을 정직하게 포용하고 실천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라고 강조한다(Tronto, 2012/2013: 264).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돌봄의 관점에서 민주적 가치에부합하는 관계맺기와 실천이 가능한 공동체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형식적으로 고찰했을 때 모든 공동체 형태들의 역할 수행에는 적어도 세 가지 척도들이 규명될 수 있다. 첫째, 전통, 기억, 언어, 영토, 재산 또는 감정 같은 공통의 것들. 둘째, 함축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원의 범위. 예를 들어 친구 모임, 인간성 또는 공통의 주거 공간 사용자. 셋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규범적인 그리고 종종 법적인 관계. 즉 집단의 규칙과 실천의 관점에서 개별자들의 예측 정도이다. 현재 공동체 이론들은 대개 일면적으로 거대 집단을 참조하는 반면, 더 작은 규모의 집단들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Rosa, Gertenbach, Laux, & Strecker, 2010/2010, 164). 어떤 사회가 돌봄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척도가 얽혀서 형성될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가운데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청불' 등급의 64.9%가 넷플릭스 콘텐츠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영상을 말하는 데, 2023년 3월 말부터 시행 중인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사업자에게 방송영상콘텐츠의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영상물 연령 등급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장슬기, 2023.3.27.). 이러한 폭력적인 콘텐츠는 돌봄 태도와 돌봄 행동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TV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청소년기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과 상관관계를 갖거나 혹은 심지어 공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Huesmann et al. 2003). 또한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온 사람들은 실제 폭력에 대한 반응이 더 느리고 폭력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덜 공감적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Linz, Donnerstein, and Penrod, 1988). 물론 TV 폭력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온건한 정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상의 미디어 폭력시청과 공격성의 관계를 비판한 연구들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TV의 폭력 재현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떨어뜨리고 유해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뉴스가 흑인의 빈곤과 복지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슈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인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Iyengar, 1991),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이미지 재현은 젠더화된 돌봄의 이미지 고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행위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이나 타인의 돌봄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Held(Held, 1993)는 좀 더 돌보는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공미디어 자원을 위한 자원 마련과 정보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든지, 폭력적인 콘텐츠에 관한 직접적 규제도 제안하고 공립학교에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과도한 TV 시청에 노출된 대중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일환으로 아이들이 미디어를 덜 보도록 아이돌봄센터를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만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라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공격성, 두려움,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질의 유급 양육휴가, 양질의 아이돌봄센터 등의 개혁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결국 어떤 경우라도 더 공감적이고 돌봄적이 될 것이며 폭력적이고 성차별적, 인종적 고정관념이 드러난 콘텐츠에 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Enster, 2007/2017: 365-370). 이런 연구 결과는 미디어 노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공동육아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만일 미디어에서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돌봄의 행위와 정서 형성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많이 다룬다면 폭력적이고 편견적 콘텐츠에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돌봄은 돌봄 공동체 지향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미디어 콘텐츠 사례를 통해 재현된 돌봄 관계와 윤리적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돌봄 윤리와 실천의 상상이 필요한 시대, 미디어는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기존 문헌 연구

1) 돌봄의 의미

돌봄을 뜻하는 ‘케어(care)’는 보살핌, 관심, 걱정, 슬픔, 애통, 곤경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caru’에서 왔다. 단어의 이중적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이 어렵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57). 이것이 돌봄 윤리를 평등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돌봄이라는 단어는 병적인 의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돌봄은 언제나 힘 있는 돌봄 제공자와 힘없는 돌봄 수혜자 사이의 양자 관계다(Noddings, 1984). 이러한 돌봄의 권력은 온전한 몸, 즉 보편적 신체는 돌봄 제공자로,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로 고정시킨다. 그러나 <돌봄선언>의 저자인 더케어콜렉티브(The Care Collective)에 따르면, 돌봄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심리적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¹⁾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020/2021, 16-17). 트론토는 돌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직접 돌보는 행위를 포함하는 ‘대인 돌봄’(caring for), 누군가의 안위를 염려하며 마음을 쓰는 ‘정신적 돌봄’(caring about),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적 돌봄’(caring with) 등으로 설명했다(2013/2021: 64). 정치적 돌봄은 ‘함께 돌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돌봄 연구자들은 현대 사회를 돌봄의 부재, 즉 무관심(carelessness)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돌봄과 돌봄 노동의 꺾이는 더 오랜 역사가 있다. 돌봄은 대체로 여성, 여성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여

1) 버틀러(Butler, J.)는 ‘상호의존’의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신체를 “하나의 단위(unit)”가 아니라 “문턱(threshold)”이라는 생각을 함축한다. “경계들과 마찬가지로 독특성과 구별됨은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상호관계성에 의해 정의되고 유지되는 존재자들을 차이화하는 특징이다. 존재자들이 상호관계적이라는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신체라는 테두리를 사람의 문턱이 아닌 끝점으로 간주하게 된다. 신체는 통과와 투과의 현상이자 타자를 향해 열려 있음의 증거이며(이것이 신체 그 자체를 정의하는 일차적 특징이다), 이렇듯 신체가 곧 문턱이라는 생각은 신체가 하나의 단위라는 생각을 약화시킨다. 이제 사람들의 평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의존성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니, 평등은 각각의 추상적 개인에게 동일한 가치를 매기는 셈법으로 축소될 수 없게 된다. 각 개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명이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 -- 물적 자원, 식량 분배, 주택, 노동, 인프라가 살아갈 수 있음의 조건들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곳 -- 의 바깥에서 각 개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규정하려면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들에서의 평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Butler, 2020/2021: 30~31). 이러한 버틀러의 신체 개념은 상호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취약함 몸이 반드시 돌봄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겨지는 돌보는 직업과 연관되어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변함없이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여 있었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단순히 더 오래된 평가절하의 역사를 이용해 불평등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또 심화해왔다. 신자유주의 주체의 원형은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과 자기 향상의 틀 안에서만 추구하는 기업가적 개인이다. 그리고 사회조직의 지배적인 모델은 협력보다는 경쟁에 기반을 둔 형태로 나타났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14-15).

가다머(Gadamer, H. G.)에 따르면 돌봄의 과정은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새로움을 향해 자신을 열어 놓고 타자 속에서 자기를, 자기 속에서 타자를 발견하는 인지적 계기를 지녀야 한다(1986, 396-405). 돌봄의 관계란, 친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그 결핍을 친구를 통해 채우듯이, 서로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여 좋은 삶을 위해 서로 주고받는 상호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이해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공병혜, 2017: 104). 우정으로 인해 자기 존중에 첨가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성의 이념이다. 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듯이 타자로서의 자기인 친구 역시 존중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기 존중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기 존중의 실현을 오히려 풍성하게 한다. 또한 우정은 함께 사는 인간과의 교류 속에서 상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상호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를 향해 있다(Ricoeur, 1996: 229).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돌봄을 주고받지만 현재의 시장, 사회, 정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돌봄을 사적인 개인 책임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단지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몫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독립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기존 제도는 차별과 배제를 일삼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초래한다. 트론토는 <돌봄 민주주의>에서 돌봄과 민주주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트론토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함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민주적 돌봄이란 돌봄 의무에 전제된 한계와 허구를 바르게 인식하고 돌봄 책임에 대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직접적이고 친밀한 돌봄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으로부터 의존적인 사람까지 모든 사람은 민주주의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서 돌봄 책임을 정치적 의제로 협상해야 한다(2013/2021, 5-10).

2) “난잡한 돌봄”과 관계성

독일에서 돌봄 혁명을 주도했던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는 돌봄 선언을 통해 인간은 상호의존적 주체이며, 이에 따라 돌봄은 인간 및 비인간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돌봄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의 돌봄 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관계적 시각은 독립적 존재에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서 관계적 존재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돌봄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팬데믹이라는 사건은 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2021/2022, 15-16). <돌봄선언>은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돌봄의 이상을 “난잡한 돌봄”이라고 명명한다. 돌봄 관계가 종을 초월하는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잡”하다는 것이다.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은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이것을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의 윤리라고 부른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79-80).

여기서 ‘난잡하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난잡한 돌봄은 가볍거나 진정성 없는 돌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여 해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돌봄과는 거리를 둔다. 난잡함이란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하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81-82). 난잡한 돌봄은 우리가 낮은 이들을 그저 스치듯 돌본다든가 타인들이 우리를 스치듯이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광범위한 범주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비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83). 난잡한 돌봄은 역사, 문화, 관습이 어떤 형태의 돌봄을 다른 형태보다 더 일반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과 이러한 돌봄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시간과 자원과 광범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The Care Collective, 2020/2021: 84-85). 난잡한 돌봄은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것을 인지한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을 돌보는 것,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것, 환경을 돌보는 것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일로서 적절한 자원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난잡한 돌봄은 어머니나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돌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서로 함께 돌봄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현재(2022)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 개념을 “퇴비(compost)”, “응답-능력과 함께하는 실뜨기²⁾”, “테라폴리스(terapolis)” 등 헤러웨이(Haraway, D.)의 비유적 개념과 함께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존의 관계와 비교하여 관계성의 유형에 따라 표로 정리한 바 있다(<표 1> 참조).

2) 헤러웨이는 <트러블과 함께하기>에서 트러블과 함께하기의 다른 말이기도 한 복수종의 실뜨기를 권한다. 실뜨기는 이야기와 닮았다. 실뜨기는 참여자들이 취약하고 상처입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패턴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실뜨기 게임은 패턴을 주고받는 것이고 실을 떨어뜨리고 실패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연결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실뜨기는 땅에서 지구에서 유한한 번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손에 손을 포개고 손가락에 손가락을 걸고, 접합 부위에 접합 부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중요하고 어쩌면 아름답기까지 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다. 실뜨기에서는 받고 건네주기 위해 가만히 들고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 실뜨기는 주고받기의 기쁨이 유지되는 한 모든 종류의 수족으로 다수가 놀 수 있는 것이다. 학문과 정치도 실뜨기를 닮았다. 열정과 행동, 가만히 있기와 움직이기, 정박과 출항이 필요한 꼬임과 뒤얽힘 속에서 건네주기. 헤러웨이가 드는 사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경주용 비둘기들이다. 그들은 그들과 얽힌 다양한 사람들, 지리, 다른 수백만 종의 인간과 비인간 크리티어(critter), 기술, 지식과 더불어 내가 실뜨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풍부한 세계 만들기(worlding) 속에서 살기와 죽기를 실천한다(Haraway, 2016/2021: 23).

〈표 1〉 관계의 다양한 종류와 유형

관계의 종류	혈연관계	법적관계	연대관계	난잡한 돌봄관계
연결의 종류	가족 공동체	국가 또는 사회	탈전통적 공동체	포스트휴먼(포함) 공동체 테라폴리스 ³⁾ 친족공동체
관계의 매개	DNA 및 정서	인지적 권리	정서적 인지적 연대	말걸기
관계의 형식	재생산	권리 존중	구성원으로 인정	실뜨기
관계의 능력	자식 생산	동일성의 확인	차이에 연대	파트너에 대한 응답-능력
존재 방식	인간중	인간 주체	인간 주체	퇴비

(출처: 이현재, 2022: 56)

해러웨이는 〈트러블과 함께하기〉에서 존재들이 “n-차원”에서 서로 얽히면서 살아가는 틈새 공간을 “테라폴리스(terrapolis)”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퇴비(compost)”에 비유한다. 인간도 비인간도 모두 테라폴리스에서는 “퇴비”이다. “퇴비”는 오염물이자 죽은 것들과 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합된 것들이다. 이러한 존재론 하에서는 인간도 순수 정신이나 통일성을 갖는 주체가 아니라 산 것과 죽은 것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 그리고 주체가 되기 위해 버려야 했던 오염물이 섞여 있는 “퇴-비”이다. 인간의 몸 안에는 죽은 세포와 균들이 함께 얽혀 살고 있다. 이때 퇴비는 휴먼과 구분되는 퇴비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퇴비이기 때문이다. 퇴-비는 관계체이지 개체가 아니다(Haraway, 2016/2021). 최유미(2020)는 해러웨이의 “퇴비”를 “포스트휴먼을 대신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형상”이라고 덧붙이면서,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죽음과 생명의 계속성”을 만들어 낸다고 해석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퇴비”들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되어가는 존재이다. 정확하게 말해 그들은 서로 축수적으로 연결되면서 “함께-되어가고(becoming-with)” 있다. 해러웨이는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 공생의 관계를 “복수종들의 함께-되기”라고 강조해서 말한다(Haraway, 2016/2021: 28). 윤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돌봄의 관계성은 해러웨이의 이같은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재는 해러웨이의 “테라폴리스”가 정확히 〈돌봄선언〉에서 말하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해러웨이는 테라폴리스에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종인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친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NA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종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운데 응답-능력 있는 실뜨기(SF)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이런 점에서 테라폴

3) 테라폴리스는 땅을 의미하는 ‘테라(terra)’와 정치체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를 합성한 말이다. 지구가 테라폴리스라면 인간, 비인간 할 것 없이 지구에 사는 모든 크리커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지닌 테라폴리스의 시민이 되는 셈이다. 테라폴리스는 n+1 차원의 중적분으로 계속 생성 중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수많은 플레이어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 비인간 크리터들은 테라폴리스라고 불리는 n-차원의 틈새 공간에 산다. 해러웨이가 테라폴리스를 위해 우화적 성격을 붙여넣은 중적분 방정식은 곧 이야기고 사변적 우화이자 복수종의 세계 만들기를 위한 실뜨기이다(Haraway, 2016/2021: 23-24).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리스를 “친족 공동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체들 간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법적 책임 관계와도 다르다. 법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권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일이라면 친족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 걸기 하는 너에게 나를 설명하고 또 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를 묻는 것이다. 친족 공동체는 서로에게 응답하는 돌봄 공동체다(이현재, 2022: 55-56).

3.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돌봄 윤리를 실천한 인물이 등장한 미디어 콘텐츠 사례로서 다소 한계를 드러낸, 드라마 <나빌레라>(tvN, 2021)와 공동체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콘텐츠에서 재현된 돌봄 관계 및 실천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아래 세 가지의 관점을 적용해서 대사와 장면을 분석한다.

1) 돌봄관계(돌봄주체와 대상) :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역사적으로 돌봄은 여성, 노동 계층,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의 관심사 정도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따라서 공적인 삶에 돌봄을 편입시키는 것은 성, 인종, 계급 그리고 ‘타인’에 대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재고하게 만든다. 미디어 재현에서 인물 간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관계맺기가 과연 평등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돌봄 주체에 대한 편향과 낙인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바르에 따르면 자율적 행위자와 의존적 수혜자의 구분이 돌봄 수혜자를 ‘타인’으로 탈바꿈시켰다(Beauvoir, 1968). 누군가를 타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타인의 것’을 분석하는 능력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 스스로 돌봄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는 그들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의존에 대한 자신들의 혐오를 돌봄 수혜자에게 투사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돌봄에 대한 논의는 돌봄 수혜자가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자율적인 행위자의 삶이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돌봄이 인간 삶의 한 단면으로만 치부되어 온 사회의 지적 경향에서 기인된 것이다(Tronto, 2012/2013: 281).

돌봄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형성되는 권력은 돌봄 윤리에 대한 중요한 동인이 된다. 웨어니스(Waerness, 1984a; 1984b)는 돌봄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자발적 돌봄(spontaneous care)”, “필수 돌봄(neccessary care)”,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다. 자발적 돌봄은 기존의 돌봄 관계가 없어도, 향후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선행과 같은 행위가

다. 필수 돌봄은 수혜자가 스스로를 위해 제공할 수 없는 돌봄을 뜻한다. 반면 개인 서비스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자신이 제공할 수도 있는 돌봄이다. 웨어니스는 돌봄과 서비스 간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돌봄에 대한 중요한 특징에 주목한다. 돌봄서비스는 노동을 제공받는 자가 더 큰 힘을 갖지만, 돌봄노동에서는 좀 더 힘 있는 행위자가 더 취약한 자를 위해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미디어에 재현된 돌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돌봄을 삶의 필수조건이자 상호적 관점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물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2) 돌봄수행 (돌봄노동과 배제) : 어떤 돌봄을 수행하는가?

더피(Duffy, M., 2011)는 돌봄을 “양육(nurturant) 돌봄”과 “비양육(nonnurturant) 돌봄”으로 구분한다. 양육 돌봄은 돌봄으로 삶의 질(well-being)이 향상되는 특정한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더피에 따르면 양육 돌봄뿐만 아니라 비양육 돌봄 역시 돌봄에 해당된다. 병원에서 청소 노동자와 세탁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미국의 비양육 돌봄은 주로 계급, 인종, 민족, 젠더로 구분되는 하층 지위의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일 돌봄의 범주에서 “남들이 꺼리는 노동(dirty work)”을 제외시킨다면, 그러한 노동을 돌봄에 포함할 때와 다르게 비양육 돌봄 제공자를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돌봄은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되어야 한다. 돌봄의 목적에 따라 실천의 종류와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은 각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돌봄 노동의 수행방식과 내용, 노동에서 제외된 무임승차를 살펴보는 것은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바라보기 위한 성찰이다. 돌봄 노동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배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확장시키고자 함이다.

3) 돌봄공백 (돌봄결핍과 소외) : 누가 소외되는가?

미디어 재현에서 돌봄 공백을 살펴보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제대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투명하게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대해 주목하기 위함이다. 트론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좀 더 많은 돌봄을 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온정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평등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편협함에 반대하는 도덕적 틀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Tronto, 2013/2021; 274). 돌봄 공백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뿌리깊은 불평등 의식이다.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미디어 재현 역시 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돌봄의 양자 관계 모델은 돌봄의 비대칭성에 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한다.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돌봄은 위계관계를 깨뜨리고 돌봄의 ‘삼각화’(triangle)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무자비한 권력의 위계 조직을 깰 수 있는 기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회를 도모하는 것이다(Tronto, 2013/2021; 286).

4. 미디어 콘텐츠와 돌봄 실천

1) 드라마 <나빌레라>(2021)의 돌봄 분석

① 덕출-해남의 돌봄 관계 :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대적 돌봄

자율적 행위자로서 가장의 위치를 유지했던 덕출(박인환 분)은 퇴직 후 돌봄 무임승차권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향해 직진하지만, 가족 양육으로 노년이 된 아내 해남(나문희 분)은 남편의 발레 수업과 공연은 물론이고, 치매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일상에서도 여전히 돌봄노동으로 자신을 보살필 여력이 없다. 문제는 미디어에서 아내에게 필요한 돌봄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내는 초인적 캐릭터처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기꺼이’ 수행한다. 스토리의 초점이 남편의 뒤늦은 꿈찾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돌봄은 가족을 부양했던 남편의 수고와 보살핌으로 같음된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아내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녀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과 대사는 남편과 딸, 사위를 위한 돌봄노동으로 가득하다.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는 장면조차 남편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다. 나문희라는 국민배우의 희생적이고,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의 역할은 무한돌봄이라는 미궁에 빠져 자신이 나이 들고 병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거나 보살필 여력이 없다.

이러한 서사를 당연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연출은 해남의 등장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주로 부엌에서 40년간 집배원 덕출을 위해 식사와 빨래, 청소를 도맡았던 해남은 발레를 시작한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발레선생님을 초대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다. 자식이 없는 딸(김수진 분)을 위해 석류를 사고, 사위(정희태 분)가 좋아하는 더덕주를 담근다. 의사 생활에 환멸을 느껴 백수가 된 막내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남편의 병을 알고 난 후로는 기억력에 좋은 재료로 식사를 만든다. 잠을 자면서도 꿍여둔 미역국을 딸한테 갖다줘야 한다고 잠꼬대한다. 남편이 발레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식들 민망하니 그만두라고 호통치고 시위하다가도 큰아들(정해균 분)이 아버지에게 어릴 적 가난으로 쌓였던 원망과 울분을 토해내자 뒤통수를 후려치며 아버지의 삶을 옹호할 만큼 덕출에 대한 사랑이 깊다. 희생적인 아내, 헌신적인 엄마로서 방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과 타인을 위해 노동하지만 정작 그녀를 위한 돌봄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에게 해남은 퇴임식 날 자신에게 건넨 감사의 말을 환기시키며 “당신 꿈의 절반은 내 지분”이라고 말한다.

덕출 : 당신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어. 40년의 당신 지분이 반이야

해남 : 당신이 일한 40년에 내 지분이 반이라고 했을 때 참 뿌듯하드라. 근데 그럼 우리 같이 온 세월만큼 당신이 지금 하는 발레에도 내 꿈이 반은 들어있는 셈이잖아요. 약해지지 말아요.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꼭 해내요.

공연을 무사히 마친 후 가족 모임에서 덕출에게 “약속시켜줘서 고마워요. 내 꿈도 이뤘네요”라고 응답하는 해남의 모습은 투명한 돌봄 제공자이다. 남편의 병을 알고 난 후부터 마음 줄이고, 건강을 챙기며,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던 해남의 돌봄은 발레공연으로 갈무리되고, 이후 남편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돌봄 노동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② 덕출-채록의 돌봄 수행 : 비양육으로서 친족(kin) 돌봄의 가능성

채록(송강 분)은 축구 감독이었던 아버지(조성하 분)가 선수 폭행으로 구속된 이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선수 생활을 그만둔다. 우연히 발레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채록은 국제적 명성의 발레리노 승주(김태훈 분)를 찾아가 제자가 된다. 승주는 채록의 재능을 인정하고 공짜로 채록을 가르치고 성장시킨다. 그러나 아빠의 구속 이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어느 날 승주가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라고 지시하자 강한 거부와 불만을 드러냈던 채록은 덕출의 따뜻한 보살핌과 위로 덕분에 조금씩 정서적 안정을 찾아간다. 승주의 부탁으로 채록의 일과를 관찰하게 된 덕출은 채록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 덕출에겐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시작한 메모였지만, 그 덕분에 채록의 외로운 삶과 정서적 공백을 알게 된다. 덕출은 채록과 함께 밥을 먹으며 채록의 식습관을 살피고,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한다. 잦은 부상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채록을 위해 교습소 아래층 정형외과 원장에게 팀닥터를 맡아달라 요청하고, 몸살로 앓아누운 채록을 위해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닫힌 채록에게 어릴 적 채록을 돌봐준 아버지를 상기시켜주며 관계 회복을 돕고, 국제 콩쿨 오디션을 앞둔 채록을 위해 집으로 데려가 맛있는 밥과 잠자리를 제공한다. 아버지의 구속으로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양심을 품은 옛친구 호범이(김권 분)가 끊임없이 채록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자 대신 나서서 중재하고, 채록을 보호한다. 그러나 호범이의 삶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격려하며 함께 도시락을 먹고, 운동을 한다.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에도 하루하루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덕출은 채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채록의 도움이 없으면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채록은 자신을 돌봐준 할아버지를 위해 진심어린 당부를 전한다(11화).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채록 : 할아버지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오늘부터 집에 갈 때 20분마다 저한테 문자 보내요

덕출 : 난 괜찮은데. 그렇게.

채록 : 그리고 저도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 못 해도요. 제가 아니니까. 제가 알아보면 돼요. 이제 할아버지 손 놓는 일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절 알아보면 언젠가 발레 알려줄게요.

덕출 : 고마워 채록아

채록 : 할 수 있죠?

덕출 : 응 그럼

덕출과 채록의 관계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꿈을 응원하는 돌봄 사이이다. 서로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채록은 덕출에 대한 자신의 염려가 자신이 받은 돌봄에 대한 평등한 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덕출의 손녀 은호가 할아버지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채록은 “고맙다는 말을 계속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거고, 할아버지도 내 옆에 서 계신 건데”(11화)라고 말하며 자신과 할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한다.

③ 발레교습소 : 취약한 이들의 상호의존적 돌봄 공간

<나빌레라>의 스토리는 덕출이 발레교습소를 찾아간 장면에서 본격화된다. 발레교습소는 덕출이 가족부양을 위해 잊고 살았던 어릴 적 꿈을 되찾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 공간은 한때 국제적 발레리노로 명성을 떨쳤던 승주의 개인 연습실이자 잃어버린 꿈을 그리워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승주에게 덕출은 방황하는 제자 채록을 붙잡아줄 수 있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했지만 차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동한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승주는 자신의 오만으로 사랑했던 발레를 그만두어야 했던 아픔을 간직한 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간다. 우연히 자신과 닮은 채록을 만나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하면서 보상받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돌아봐야 하는 내면의 문제는 외면한 채 성과에 집중한다. 그러나 덕출과 채록이 서로의 취약한 점을 메워주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승주는 자신이 놓쳤던 모습을 발견한다. 발레를 그만두었던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이후에도 묵묵히 자신을 도와주고, 걱정해주는 전 부인 소리(윤지혜 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리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했던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통해 승주는 자신 역시 누군가의 돌봄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승주 : 채록이하고 어르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렇게 서로 힘이 되는 관계도 가능한 거구나. 나는 그러질 못했잖아. 난 항상 나만 우선이었고. 부상으로 발레를 접을 때도 난 나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 심지어 너조차도. 넌 내가 아니니까 관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잖아. 너도 힘들었는데. 이제 알겠어. 그 모든 게 나 혼자 해낸 게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 나 계속 봐줘서.

승주의 자존심을 세워줄 존재로 선택했던 채록이 덕출을 통해 진정한 발레리노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승주의 아이덴티티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지도자로 변모한다. 이를 가능케 했던 강력한 조력자 역시 소리다. 드라마에서는 소리가 꺾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이 생략된 채 승주의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현되지만, 소리라는 캐릭터의 희생적 돌봄 없이는 승주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소리는 가사노동과 육아돌봄이 아닌 동료로서 조언과 충고,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만들어주는 돌봄을 실천한다.

교습소 아래층의 정형외과 원장 오중식(이화룡 분)은 근무 시간 외에 수시로 찾아오는 채록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다. 채록뿐만 아니라 덕출의 건강을 염려하고, 덕출이 채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들(한약, 휠체어 등)을 기꺼이 내주는 돌봄 제공자이기도 하다. 오중식은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앞세운 진료를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채록과 덕출에게 필요한 처방과 진료, 조언과 물질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발레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덕출의 병을 알게 된 둘째 아들 성관(조복래 분)은 발레리노에 도전하는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다큐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의사의 꿈을 되찾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사르면서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고, 신체적 통증과 잃어가는 기억 사이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관은 환자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병원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한다.

④ 생애 말기 돌봄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 : 얽힘의 함께-되기는 가능한가?

〈나빌레라〉는 칠순이 된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모인 장면에서 시작된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가 손주를 돌보러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소식에 한 친구가 말한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우리가 기저귀를 차거나 손자손녀 기저귀를 채워주거나 둘 중 하나야.” 이 대사는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노년의 부담이 개인 또는 가정에 국한된 현실을 잘 드러낸다. 가족부양에 평생을 헌신한 아버지들은 자신이 사용한 돌봄 권리를 가족들의 돌봄 제공을 통해 보상받기 바란다.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와 분례해서 생각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킨다 (송병기, 2023: 10).

생애 말기 돌봄에서 집안일은 간병 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감정 노동으로도 이어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진다. 집안일이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까지 대다수 한국인이 집에서 임종했다는 사실은 바꿔말하면 집에서 주로 여성(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아내, 딸 등)이 환자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시작부터 생애 말기 돌봄은 성별 분업에 기반했고, 집 안에 고립되어 있었다. 공적 돌봄과 복지의 공백은 개인(가족)의 '도리', '효', '천성', '사랑'과 같은 언어와 실천으로 메워졌다. 산업역군으로서 남자들이 바깥일을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자들은 현모양처로서 집안일(출산과 육아도 포함됨)을 하도록 고무됐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비가시화하고, 남성 노동자에게만 임금을 주는 사회구조는 산업화를 싸고 빠르게 이룩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자연스럽게 생애 말기 돌봄은 '집사람이 공짜로 하는 집안일'이라는 인식과 경험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돌봄 노동은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집안일로 여겨졌고, 시장에서 그 가치가 낮게 매겨졌다(송병기, 2023, 23-24). 집을 둘러싼 이 '양극화'가 생애 말기 돌봄을 곤경에 빠뜨렸다. 환자 곁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가뜩이나 웅색하고 시혜적으로 보이는 공적 돌봄을 받기 위해서 환자는 자신의 몸과 집의 비참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환자는 집에 고립되거나, 군말 없이 요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송병기, 2023: 26-27).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가장 친한 친구 교석이 요양원에서 수년간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외롭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접한 덕출은 자신의 병과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가족들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발레공연을 무사히 마친 후 가족들의 축하 모임에서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덕출에게 가족들은 진심을 담아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다. 딸 성숙의 애원은 오랜 시간 가족을 부양했던 덕출의 돌봄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준다.

성숙 : 아버지가 비 올 때마다 나 데리러 학교 왔었잖아요. 내가 덤벙대서 맨날 우산 까먹고 가고, 여름에도 감기 달고 사니까 노란 우비 입고 교문 앞에서 있었잖아. 기억나요? 나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처럼 해야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자식한테 갚지 말고 아버지한테 갚으라는 뜻이었나 봐. 아버지가 나 먹이고 입히고 재웠으니까 이젠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가 말을 잃으면 내가 말을 가르칠 거고. 아버지가 글을 잊으면 내가 한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가지 마요. 간다는 소리 하지 마요, 예?

성숙은 부모님 곁으로 이사를 하고, 큰며느리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결국 가족들의 당부와 애원으로 집에 남게 된 덕출. 그러나 기억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드라마의 말미에서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젊은 시절의 집배원으로 돌아간 덕출은 수시로 마을에 (해남의 연락처가 담긴) 가짜 편지를 열심히 배달하고, 해남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남편을 찾아 나선다. 해남의 삶은 집배원 아내에서 세남매의 엄마, 발레리노의 아내를 거쳐 타인이 된 남편을 돌보는 일상으로 이어진다.

〈나빌레라〉에 등장하는 각 인물 간 돌봄 제공과 수혜는 난잡한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요양원에 도착한 큰아들 성산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요”라며 흐느낀다. 덕출은 장남이 회사에서 억울한 처지에 몰리자 어릴 적 사주지 못했던 새 야구 글로브를 사다주며 “지금도 [난] 네 수비수야. 네 소신껏 마음대로 던져라, 성산아”라고 격려한다. 한편 성산의 아내 애란(신은정 분)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기가 죽은 남편에게 건네는 격려는 새로운 돌봄 관계 형성의 단초가 된다.

애란 :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당신답지 않게 이려고 있는 거 싫어. 안 괜찮는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당신이 너무 안 됐다. 더 이상 안 그래도 돼. 내가 당신 책임질테니까

성산 : 미안해

애란 : 그간 고생했는데 뭐가 미안하니. 수고했어, 심성산. 정말 고생 많았어

사내 커플로 결혼한 후 20년 간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했던 성산의 아내는 재취업에 성공해서 옛직장에 복귀한다. 실직한 남편을 향한 그녀의 대사는 돌봄 제공과 수혜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 애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기업의 사원이 된 유능한 여성의 돌봄 제공이라면 해남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집안일에 간혀 자신의 꿈과 미래와는 무관한 타자화된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경력 단절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진출한 애란의 돌봄은 낸시 프레이저가 “보편적 생계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모델”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동등한 돌봄 제공자(caregiver parity) 모델”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여성은 상근직과 같은 비율의 수당을 받으면서 돌봄에 전념할 수 있고 유연근무,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돌봄을 병행한다. 이 모델로 여성은 어느 정도 경제적 불평등을 회복하지만 성별에 따른 역할 분화가 여전히 상황에서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universal caregiver) 모델”을 제시한다(Fraser, 2013/2017: 188).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라고 부른다. (더 케어 컬렉티브, 2020/2021: 80)

보편적 돌봄 제공자(universal caregiver) 모델에서, ‘난잡한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각자의 돌봄 필요를 묻고,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실천이다. 난잡한 돌봄의 실현은 정확한 필요를 바탕으로 공평한 돌봄 제공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 덕출과 해남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에는 ‘죽음’이라는 공통의 시간이 흐른다. 덕출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남의 신체와 기억 역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해남이 덕출의 삶을 돌보는 것처럼, 해남에게도 돌봄을 제공하고, 염려하며, 어머니나 아내가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아닌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해남의 실존을 응원하는 퇴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빌레라>의 결말에 남겨진 해남의 삶은 결코 상호의존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부장적 시간만 되풀이된다.

덕출과 해남의 생애 말기 돌봄에서 과연 “함께-되기”의 윤리가 재현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돌봄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서로 얽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이기 때문이다(이현재, 2022: 42). 관계적 자아를 통해 ‘함께-되기’를 시도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윤리라면 해남 역시 연결을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하는 돌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덕출이 집배원에서 발레리노라는 꿈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해남에게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서로에게 응답하면서 실프기를 하는 공-산(sym-poiesis)⁴⁾의 삶이 필요하다.

2)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의 돌봄 분석

① 교사-아이들의 돌봄 관계 : 돌봄의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진 돌봄

도토리마을 방과후 터전의 돌봄 주체는 교사들이고 대상은 아이들이지만, 실상 돌봄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아이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얽혀서 ‘일상’이나 ‘생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배움으로써 서로를 성장시킨다. “나는 학교가 아닌 마을에 있는 교사이며, 배움의 주체는 아이들이고 배움의 대상은 일상이라고 믿는 동료들과 일합니다. 나는 매일 아이들과 만나며 일상에서 그들의 삶이 그 자체로 빛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상의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의 황다운 감독의 잔잔한 내레이션이 말해 주듯, 어른들은 터전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스스로 만든 몸과 지구에 좋은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의 세계에서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간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나 좋은 것이 아닌,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단단해져 간다.

오솔길 : 나는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들의 느낌을 짐작하고 즐거운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배움은 나에게 왔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의도치 않게 가르침을 받는다. 무엇을 배웠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삶을 통해 지속해서 말이다(박민영 외, 2023: 174-175).

4) 심sym이 ‘함께’이고 포이에시스poiesis는 ‘제작하다’, ‘생산하다’의 뜻이니 심포이에시스는 共-作이나 共-産을 뜻한다. 모든 제작이나 생산은 다른 무언가와 함께-제작하는 것이고 함께-생산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다른 무언가와 함께하는 공-산 체계 속에서 생산된다. 공-산을 뜻하는 심포이에시스는, 하나의 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성분들이 하나의 계를 이루는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간 말로 헤러웨이가 제안한 개념이다(최유미, 2020: 5).

학부모들과도 6년을 함께 하다 보니 공동체 식구로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돌본다. 선생님들은 논두렁, 오솔길, 분홍이, 자두, 보름달, 언덕 등 별명으로 불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서로 평어를 사용한다. 평어는 존댓말과 반말의 위계를 허무는 효과가 있다.

자두 : 반말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 수평적 문화를 경험해 본 아이들은 그 거리를 생각할 때 나오는 다를 것이다. 반말 혹은 존댓말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이고 지양해야 할지, 지양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할 것이다(박민영 외, 2023: 97-98).

오솔길: 아이들이 만나야 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란 무엇일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의미있는 타인은 아이들이 자라는 곳의 주변 사람들이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마을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교사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받았던 아이의 편지에서 답을 찾아본다. “오솔길에게. 우리가 싸울 때 언제든지 달려와 아주 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려 줘서 고마워.” 아이가 만족한 것은 나의 ‘판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달려와’가 아닐까. (박민영 외, 2023: 87-88)

다큐멘터리는 화면에서 아웃포커스가 된 채로 찍힌 피사체가 거의 없이, 심도가 깊은 촬영으로 화면 속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모두 평등하게 담는다. “이 다큐멘터리의 심도 촬영은 인공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 위주로 촬영되어 비주얼이 뛰어난 촬영의 영화는 다른 느낌이다. 눈 앞에 펼쳐진 생짜배기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교사들이 회의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도 카메라가 한 인물로 따고 들어가지 않고 심도 촬영으로 최대한 평등하게 인물들을 최대한 동등한 시선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영화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작품이다.”(한상훈, 2023.1.18).

② 교사-학부모, 교사-교사의 돌봄 관계 : 교육과 돌봄의 가치를 고민하고 상호 배려하는 돌봄

도토리마을공동체 방과후의 일상을 펼쳐 보이면서, 회의 장면 속에서 스스로 고민을 드러내고 내레이션은 공적 지원 없는 공동육아 방과후 돌봄의 (불)가능성을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주장한다. 도토리 마을 방과후는 사회적부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과 조합비를 모아서 운영된다. 학부모들은 교육소위원회, 시설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방과후 운영에 참여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한다. 학부모들은 조합비로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 개선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교사들은 비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터전에 뿌리내리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미안함에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스며있다. 배려란 ‘이 화분은 발이 없으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니까 내가 옮겨 주어야지. 햇볕을 쬐고 싶을 테니까.’ 이렇게 화분을 햇빛이 드는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 준다(박민영 외, 2023: 87-88).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학교를 스치듯 다녀오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터전의 운영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과후 터전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터전에도 점점 활기를 잃어간다. 터전을 마주 보고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활기 가득한 첫 쇼트와 텅 빈 터전의 모습의 쓸쓸함의 대비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다. 특별한 사건도 없이, 출근하고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면서 시작하는 터전의 생활을 비추고 아이들과 놀고 회의를 하면서 처한 현실을 간간히 보여주다가, 돌봄 노동자로서의 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다큐는 끝이 난다.

영화는 삶의 반복과 변주와 흐름을 터전의 일상 속에 함께 녹여내면서 전체로 환원되거나 특정한 무엇으로 엮어낼 수 없는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 마을 방과후 교사를 소개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선명하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의 자리를 일깨운다. 지금까지 교육을 다룬 재현의 장에서 소외된 이들 마을방과후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들만의 무늬를 그려낸 것이다. 영화는 삶의 반복과 변주와 흐름을 터전의 일상 속에 함께 녹여내면서 전체로 환원되거나 특정한 무엇으로 엮어낼 수 없는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 마을 방과후 교사를 소개하고 관찰하고 조용하고 선명하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의 자리를 일깨운다(이승민, 2023.1.19.).

지금까지 교육을 다룬 재현의 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들만의 무늬를 그려낸 것이다. 시도는 함께-되기 돌봄이었지만 결국 교사들의 돌봄 결핍을 메울 수 없는 정책 부재가 교사 개인의 무력과 좌절로 이어졌다. 마을 방과후 내에서는 학생들과 상호의존적인 교육을 펼치는 주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돌봄 제공자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현실 앞에 교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불안으로 하나둘 도토리마을 방과후를 떠나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도 마을 방과후 교사로서 쌓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부조리 앞에서 다큐멘터리는 돌봄의 수혜자로서 인식되지 못했던 ‘교사의 삶’을 소환한다. 아이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는 방과후 교사들도 정작 자신 역시 사회적 돌봄의 수혜자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드러내는 수행은 의미있는 저항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은 다큐멘터리의 양식 중 하나로서, 제작 주체가 현실에 직접 개입해 사건을 추동하는 퍼포먼스의 일종이다. 수행은 주관과 객관의 프레임을 넘어 제작 주체 또는 배우의 퍼포먼스와 리얼리티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와 정서에 주목한다(이승민, 2017: 173). 교사들은 다큐멘터리라는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돌봄 공백을 드러내고, 노동 현장을 가시화한다. 이를 통해 도토리마

을방과후 내부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교사 처우와 현실적 고민들이 마을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방과후 교사들의 문제로 확장되고, 연결된다. 돌봄 실천의 가장 기본적 요소가 관심과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타인의 삶에 투영하고, 나혼자 잘 살기 위한 투쟁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동체 돌봄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③ 도토리마을방과후 터전 : 얽힘의 함께-되기(실뜨기)로서의 민주적 돌봄 공간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⁵⁾는 2019년부터 코로나 시기인 2022년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25년차 공동체 마을, 성미산 마을의 “도토리마을 방과후” 터전에서 60여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놀이하고 방과후 생활하는 5인의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공동육아 초등 방과후의 구성원들은 이곳을 “터전”이라고 부른다. 공동육아는 교사와 부모가 공동체 마을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보호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초등학교 시기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곳 터전에서는 주로 놀이, 산책, 게임을 하면서 생활한다. 도토리마을 방과후의 교육프로그램은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건물 옥상을 루프탑으로 활용하여 영화 상영회를 열고 토론한다. 함께 배운 노래나 악기, 요리 등을 나누며 응원하는 전시 및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터전 1층 야외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터이다. 술래잡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긴다. 토요일마다 자전거 교실을 열어 두발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 타기에 자신이 있는 아이들은 근처 공원까지 왕복하는 레이스를 펼친다. 동네 뒷산에 올라 자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 간다.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에서 재현된 교육 공간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일상적 공간의 재맥락화이다. 르페브르(Lefebvre, H.)는 공간을 “읽히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생명이 있는 인간이 삶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공간적 실천은 기존의 (상식, 힘, 일상적) 공간 관념에 저항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창작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담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74/2011: 76-90). 도토리마을 방과후 교사들의 공간적 실천은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자연과의 조화, 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존중, 신체 놀이의 다양한 즐거움 등을 통해 교실과 마을 공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전복을 시도한다. 이승민은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행하고, 기록한 작품을 ‘장소 특정적 수행다큐멘터리’라고 명명한다. ‘장소 특정(site specific)’이란 특정한 장소/공간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예술의 한 장르이자 개념이다. 여기서 특정한 장소는 작품 자체이거나 작품의 배후 혹은 내면을 가리킨다. 장소

5) 도토리마을방과후(1996년부터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 존재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다니는 두 아들의 학부모인 감독(박홍열, 황다은)을 맡았다. 2022년 4월에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2022년 9월에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코리안 쇼케이스)에 초대받았다. 한국에서는 2023년 1월에 개봉되었고 유튜브, 왓챠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와 영화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식이다(이승민, 2017: 172-174). 장소 특정적 수행은 사라져 가는 장소성에 대한 전위적 방식의 저항일 수도 있고, 상실에 대한 경험적 체현(embodiment)일 수도 있고, 한시적 점거로 새로운 기억을 삼는 작업일 수도 있다. 비워진 채 소외된 공간을 소통, 교류, 성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 공간은 고정된 공간이 아닌 일종의 ‘노마드적인 공간’으로 유동적이고 순간적이고 저항적이다. 소유보다는 공간에 잠시 머물면서, 벗어나고 위반하고 탈주하는 탈영토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 공간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87/2001: 434). 탈영토화된 공간은 다시 재영토화되고 고정되는 순간 머무는 자는 다시 탈주할 수 있다.

도토리마을 방과후 교사들과 아이들이 전유하고 전복하며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는 공간들은 경쟁과 서열로 점철된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신체와 감성, 관계와 연대를 배우는 실험실이자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리듬으로 배치하는 탈영토의 시간을 제공한다. 마을방과후 교실의 돌봄 관계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구성원 외에 마을에 사는 이웃들과 식물들, 햇살과 바람, 동물과 소리들이 교차하며 성장하는 얽힘의 관계다. 서로가 서로의 일상을 살피고, 아픔을 공유하며, 새로운 것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④ 마을 공동체 바깥의 도토리마을 방과후의 돌봄은 가능한가?

본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교사들이 함께 쓴 책, <아이들의 나라의 어른들 세계>에 의하면 터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교사들은 도토리마을 방과후 터전을 소개받기 전에 마을 탐방부터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마을을 소개하지 않고는 터전을 설명할 수 없고 마을에서 일하려면 개인 중심 사고를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 중심의 사고는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늘 함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마을’은 도토리마을 방과후의 근간이 되는 가치이고 성미산 마을 안에서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마을의 가치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아이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르신 간식 나눔을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간단한 게임과 공연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한다. 마을의 존재는 고립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숨통을 열어준다(박민영 외, 2023, 89-91).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에서 목도할 수 있는 많은 상호작용은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상호작용(intra-action)을 한다. 릴레이, 실뜨기, 패턴을 앞뒤로 보내기, 주고받기, 패턴 만들기, 요청받지 않는 패턴을 손에 들고 있기, 응답-능력(response-ability)⁶⁾ 등 해러웨이가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말로 의

6) 해러웨이는 책임을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이라고 부른다. 야생비둘기의 생식력을 물질적인 도시의 힘이라고 믿으며 그녀는 트러블과 함께하기의 응답-능력을 향한 열림을 촉진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며 무언가를 환기하는 베트맨공원의 비둘기집을 언급한다. 이 비둘기집은 200개의 동지 상자가 있어서 여기서 알을 낳도록 비둘기를 초대하고 사람들이 비둘기 알을 인공 알로 대체하고 비둘기는 이것을 품는다. 그녀에게 응답-능력은 없음과 있음, 죽이기와 양육하기, 살기와 죽기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문화사의 실뜨기 속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기억하기(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다)에 관한 것이다(Haraway, 2016/2021: 50-51).

미하는 핵심어가 가득하다. 이는 함께-되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함께-되기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유능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존재론적으로 이질적인 파트너들은 관계적 물질-기호론적 세계 만들기 속에서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되고 무엇인가가 된다. 자연, 문화, 주제, 객체는 그들이 밀접하게 뒤엉킨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Haraway, 2016/2021: 12). 마지막으로 다큐는 오랜 공동체에서의 수평적 관계의 돌봄도 시스템상에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는 그동안 미디어에서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관계에 있어서 말걸기를 시도하고, 실뜨기로서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돌봄의 유형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재현되지 않았던 초등 방과후 돌봄의 문제, 돌봄과 교육의 문제, 돌봄의 가치와 돌봄 노동의 여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다큐에서 드러나는 마을공동체 방과후돌봄은 조합원으로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돌봄을 동시에 배제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공동체적 삶에서 지리적 장소에 기반을 둔 공동체(communities of place)다(설한, 2017: 74). 마을공동체를 벗어난 장소는 마을의 돌봄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외부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돌봄공동체 유형에서는 함께-하기가 기이한 친족 만들기, 퇴비로 나아가지 못한다. 뜨거운 퇴비(compost) 더미 속에서 예기치 않게 협력하고 결합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현재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서비스는 6가지 유형이 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등돌봄 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학교에 머물면서 예체능과 교과 연계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간식도 제공된다. 다음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돌봄터, 지자체 초등돌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다함께 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정부24시 누리집⁷⁾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원의 이들 프로그램과는 결이 다르게 운영되는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의 도토리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육과 돌봄의 가치에 있어서 이들 초등돌봄서비스 프로그램에 매우 신선한 상상력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한다.

7) 정부 24시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5. 결론 및 함의

미디어에서 다양한 돌봄의 유형을 재현하고, 기존 돌봄 공백을 문제시하며 돌봄 공동체와 새로운 유형의 돌봄 수행을 상상하는 일은 돌봄 윤리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가 돌봄, 공감, 정의 등의 이타적 태도와 행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미디어 콘텐츠의 사례로서 지금까지 드라마 <나빌레라>와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를 텍스트로 돌봄관계(돌봄주체와 대상), 돌봄수행(돌봄노동과 배제), 돌봄공백(돌봄결핍과 소외)의 관점에서 돌봄 행위를 해석했다. 죽음을 앞둔 노인 돌봄과 학교와 가정을 잇는 방과후 초등돌봄은 매우 다른 유형의 돌봄이지만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헬드의 주장처럼 사회정의라는 보다 큰 논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개인적 돌봄에 값어치를 매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봄노동의 수행자가 되기 쉬운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인정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들에게만 전가하는 기존 돌봄의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Held, 2006: 16). 평생을 가족과 남편을 위해 무급 돌봄 노동으로 희생해 온 <나빌레라>의 해남(나문희 분), 그리고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처우 개선과 사회적 가치의 인정을 갈구해 온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에서의 오솔길, 분홍이, 자두, 보름달 등 여성 선생님들의 돌봄노동은 상당한 시간성에도 불구하고 숙련이 반영되는 보상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존 돌봄 유형을 되풀이할 뿐이다.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2020)을 통해 발달장애인 여동생의 탈시설과 마을에서 함께-살아가기를 보여준 장혜영 감독은 동생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누군가의 도움과 상호의존을 통해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또한 장애인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채 18년을 살았던 동생의 탈시설은 결코 자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진정한 ‘자립’이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세상에 다시없는 존재로 ‘자기다움’을 위한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과정에서 세상 속의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립’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장혜영, 2020: 58).

한 사람의 존재가 오롯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관계를 통한 ‘얽힘’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장소, 사람과 사물, 동물 같은 비인간 등 다양한 대상과 소통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수성을 배워가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여동생을 돌보는 일을 혼자 도맡게 될 경우, 언니의 삶은 송두리째 저당 잡히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 실천은 각자의 취약성을 매우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응원하고, 성취하도록 돕는 관계망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난잡한 돌봄’의 관계망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어쩌면 가능한 동시에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트러블과 함께하기> 서문에서 해러웨이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친족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과제는 창의적인 연결망 안에서 친족(kin)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두

터운 현재 안에서 함께 잘 살고 잘 죽는 것을 배우는 실천이다. 우리의 과제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중요한 장소를 다시 구축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을 만들고 파괴적인 사건들에 강력한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위급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고 미래에 불안감을 드리우며 불쑥 나타난 무언가를 방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를 말끔하게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트러블을 다루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러블과 함께하는 미래라 불리는 시기와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트러블과 함께하는 진실로 현재에 임하는 것을 배우기를 요구한다.”(Haraway, 2016/2021, 7-8).

해러웨이는 자신의 이론적인 도구인 SF(Science Fiction, Speculative Feminism, Science Fantasy, Speculative fabulation, Science fact, string figures)들을 통해 일상의 가부장적 “말씀”들을 다양한 이야기들로 바꾼다. 일상은 명령이 실패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조화와 합일의 꿈같은 곳도 아니다. 해러웨이는 이야기하기를 통해 일상은 불평등한 권력의 공간이고 누구도 권력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간지옥은 아니다. 그 권력관계를 출렁이게 하는 치열한 정치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는 윤리적인 실천들이 있기 때문이다(최유미, 2020: 292). 이렇듯 실뜨기 관계망으로부터 발전한 상상적 이야기하기는 미디어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재현 또는 비재현적 방식으로 펼쳐내는 실뜨기 관계망은 돌봄 윤리의 미디어 실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글의 의의는 낸시 프레이저와 도나 해러웨이의 돌봄 이론이 추상적 이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콘텐츠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현재에서 좀 더 함께-되기 돌봄으로 지향하는 지원과 제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소정 (2023.1.30.).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리뷰 : 불가능한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다. <인디스페이스>. <https://indiespace.kr/5823>
- 박민영(분홍이), 손요한(논두렁), 한은혜(자두), 박상민(오솔길) (2023), <아이들 나라의 어른들 세계>. 베르단디.
- 설한 (2017).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동체. <공동체와 로컬리티>(40-81). 심산.
- 송병기 (2023). 각자도사 사회. 어크로스.
- 이승민 (2017). <영화와 공간>. 갈무리.
- 이승민 (2023.1.19.). [이승민의 시네마 크리티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디플로마티크>.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3>
- 이현재 (2022).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37권, 27-60.
- 장슬기 (2023.3.27.). OTT 콘텐츠 5편 중 1편이 청불, 넷플릭스 성인물 최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39>
- 장혜영. <어른이 되면>(2020). 시월.
- 전홍기혜 (2023.1.7.). “‘교사’지만 ‘교사’라 하지 못하는, 나는 마을 방과 후 교사입니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만든 황다운·박홍열 감독. <프레스리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5343746929>
- 최유미 (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 한상훈 (2023.1.18.). [리뷰] 참으로 오랜만에 본 맑고 아름다운 영화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무비톡>. <https://www.movietok.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6>
- Beauvoir, S. d. (1968). *The Second Sex*, New York: Modern Library.
- Butler, J. (2020). *The Force of Nonviolence*. 김정아 (역) (2021). <비폭력의 힘>. 파주: 문학동네.
- Duffy, M. (2011). *Making Care Count: A Century of Gender, Race, and Paid Care Work*,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Deleuze, G.,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재인 역(2001). 새물결.
- Enster, D. (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 Fraser, N. (2013). *Fortunes of Feminism: From State-Managed Capitalism to Neoliberal Crisis*. Verso Books, London. 임옥희 역(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갈무리.
- Gadamer, H. G. (1986). *Freundlichkeit und Selbsterkenntnis in Gesammelte Werke 7*, Tübingen: Mohrsiebeck. 396-405.
- Haraway, D.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최유미 역(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 Held, V. (1993). *Feminist Morality: Transforming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d, V.(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 Huesmann, J. Moise-Titus, Podolski, C. L. & Eron, L. D. (2003).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1977-1992. *Development Psychology* 39(2), 201-221.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Éditions Anthropos. 양영란 역(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Linz, D. G., Donnerstein, E. & Penrod, S. (1988).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Violence and Sexually Degrading Depictions of Wo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58-768.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tel, R. & Moore, W. J. (2017). *A History of the World in Seven Cheap Things: A Guide to Capitalism, Nature,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백우진·이경숙 역(2020).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북돋음.
- Ricoeur, P. (1996). *Das Selbst als ein Anderer*, Aus dem Franz. von J. Greisch München: W. Fink Verlag.
- Rosa, H., Gertenbach, L., Laux, H. & Strecker, D. (2010). *Theorien der Gemeinschaft*. Junfermann Verlag, Hamburg. 광노완·한상원 역(2010).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 The Care Collective. (2020). *The Care Manifesto*. 정소영 역(2021).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 <나빌레라>(tvN, 2021)와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2023)를 중심으로

Tronto, J. C. (2013). *Caring Democracy*. 김희강·나상원 역(2021).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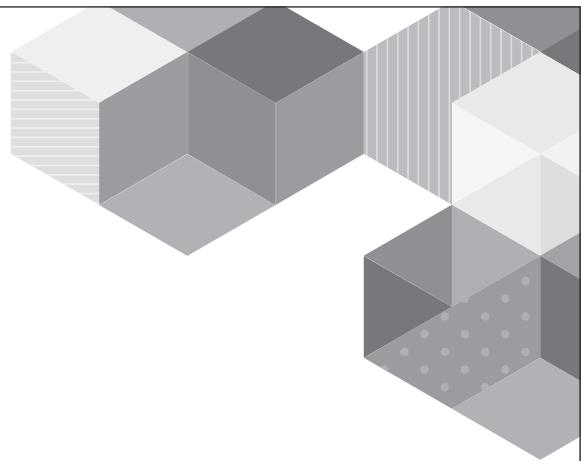
Waerness, K. (1984a). Caring as Women's Work in the Welfare State, In *Patriarchy in a Welfare Society*, ed. H. Holter, Oslo: Universitetsforlaget.

Waerness, K. (1984b). The Rationality of Caring,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5: 185-211.

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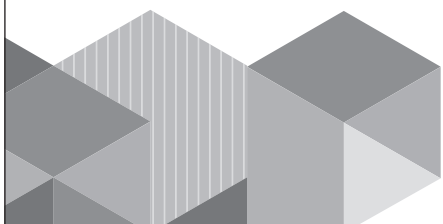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2023). 박홍열·황다운 감독, 스튜디오 그레이인플.

<나빌레라>(2022). 한동화(연출), 이은미(작가). tvN.



재난의 시대, 돌봄 가치와 미디어의 역할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정혜실(안산공동체미디어)





방송언론이 누구의 어떤 위기에 주목하고 있는가?

“팬데믹 이후에 태동하는 사회적 기획은 부재한 것, 귀중한 것,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감각에 달려 있다.

돌봄은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소망을 표현하는 핵심 단어이다.”

(김현미, 2022,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시아)

방송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재난·감염 병 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8.>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 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 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방송심의규정 제7조

-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신설 2012.12.6, 2014.12.24.>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 병(이하 "재난·감염 병 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2020. 12. 28.>

1. 재난·감염 병 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감염 병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감염 병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방송심의규정

② 재난·감염 병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 병 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4., 2020. 12. 28.>

③ 사업자가 재난·감염 병 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 병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 병 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4. 12. 24., 2020. 12. 2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공동체 라디오에서 공동체는 얼마만큼 차지하고, 라디오는 얼마만큼 차지해야 하나요?"

"공동체 90%, 라디오 10%."

- 영국공동체라디오 핸드북 - 공동체라디오 만들기
2004년 2월에 열린 공동체FM 회의

"마을미디어가 1인 미디어와 다른 점은 혼자가 아니라 '연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고 마을미디어 채널은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 세상을 바꾸는 마을공동체미디어(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법인 20개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The infographic displays a map of South Korea with 20 callouts, each representing a newly permitted community radio station in a specific region. The regions and their respective stations are:

- 서울 (Seoul):** 시민의 공동체라디오, 시민의 공동체라디오, 시민의 공동체라디오
- 인천 (Incheon):** 연수공동체 FM, 인천 FM 방송
- 대전 (Daejeon):** 시민생태문화방송
- 세종 (Sejong):** 시민공동체라디오방송
- 대구 (Daegu):** 시민생태문화방송, 시민공동체라디오방송
- 부산 (Busan):** 연해구공동체라디오
- 광주 (Gwangju):**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충남 (Chungcheongnam):**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충북 (Chungcheongbuk):**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경북 (Gyeongbuk):**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경남 (Gyeongnam):**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전북 (Jeonbuk):** 시민공동체라디오
- 전남 (Jeonnam):** 시민공동체라디오
- 강원 (Gangwon):**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충청 (Chungcheong):**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경원 (Gyeongwon):**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 강원 (Gangwon):** 시민공동체라디오, 시민공동체라디오

비영리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 **공동체라디오**

- 비영리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힘의 부여 (empowerment)와 공론의 장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기여에 있다.(김영옥, 2005b)
-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한 비영리 조직은 공중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지게 된다. 공중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양된 광범위한 미디어 접근으로 비영리 조직은 공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론의 장 확대를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ottle, 2000, 2003: Davis, 2000)

- 김영옥, 2010, 비영리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지역 재난 시 공동체 라디오는 뭘 해야 하나?

- 재난 시 행동요령 방송제작
- 재난 시 나를 보호해주는 주체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국가나 경찰이 아닌 친한 이웃, 가족인 경우가 더 많다 - 이웃 알기 캠페인 진행
- 사회안전 캠페인 제작 및 편성
- 시민들이 보호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는 일원으로 활동
- 재난발생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방송으로 전환
- 재난 시 정보소통 부재 완화
- 근거 없이 떠도는 가짜 뉴스 필터링
- 재난 시 정부, 지자체, 구호단체의 발표와 활동 모니터링
- 쌍방향 의사소통 확립
- 지역축제나 행사 시 현장 상황 공유
- 구호활동 상황과 대응요령 구호물자배급처 및 방법, 피난처, 이재민소식, 실종사고 발생 시 인상착의방송, 자원봉사 그룹간의 협조 등 방송
- 재난 후 방송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활동 등

참조: 성남FM공동체라디오 제안

일상화되는 재난, 공동체라디오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2022 성서공동체FM 특집다큐멘터리

지역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에 답을 묻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9.1 Mhz
성서공동체FM

“방송 제작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수십 명의 시민제작자들은 각자 마을에서, 각자 일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주는 리포터 역할을 해주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식자재 소진 소식, 공적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었던 우리 동네 우체국 앞 상황 등의 소식들을 전해주었죠.

또 주변에 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올려주면 누군가는 검증하고 이것은 다시 방송으로 연결되어요. 가끔은 악의적인 기사에 함께 공분도 하고 가슴 따뜻한 소식에 함께 기뻐하기도 했죠. 그렇게 3월 18일까지 총 11회의 생방송을 4주간 진행했고 방송은 기존 운영시스템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우리는 마을에 산다> 에서 마을초대석이나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관련 소식이나 이슈를 전하고 있고요. 시민제작자가 직접 제작하는 각자 방송에서 코로나 소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널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우리가 방송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재난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록하는 것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이 공동체 라디오로서 우리가 지역공동체에 답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여겼어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공동체의 온기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싸는 사람들, 대구에 온 의료진에게 게스트하우스를 개방한 사회적 기업, '그런데 장애인은 어찌죠?'라는 단 한마디에 이틀 동안 3백만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시지마을공동체사람들 이야기, 대구 환자들을 받겠다는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행정과 정치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공동체의 진정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저희 방송국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성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주변에 소소한 것들,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계속 말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도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방송국 성서공동체FM이 공동체 라디오로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소통을 이루어 내는 통로가 되길 바래 봅니다."

[코로나19, 대구시민사회를 응원합니다] (5) 성서공동체FM, 김상현
글쓴이 김민규 -2020-06-2410:39
<https://www.newsmin.co.kr/news/50179/> 뉴스민

성서공동체FM,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함께 하다

"3월 18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한 달여 간의 코로나 19 특집방송이 끝났다. 한 달여간 방송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몽클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꼭 필요한 방송을 해주어서 고맙다", "특집방송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들어서 좋았다", "재난 상황에서의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해주어서 고맙다" 등의 이야기들은 매번 방송을 준비하며 어떤 내용을 들려드려야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힘들어하던 기억을 모두 잊게 해주었다."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지역의 방송국이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시작했지만 처음 겪는 위기와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려는 사회 곳곳의 작은 노력들을 전달하는 일이 공동체 라디오, 지역 라디오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출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http://krmedia.org/pages/page_118.php?sn=10382), 미디어센터이슈
2020년 4월 21일 김경민(성서공동체FM PD)

지역공동체... 사람을 만나다

단원FM과 책방을 만든 과정, 왜 지역에 기반해야 하는지 등의 이야기 들으며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 상드
패널: 지하(책방 펌), 정혜실(단원 FM), 최윤경(단원 FM)
연재: 9월 19일 오후 7:30
어디서: 책방 펌 (상록구 석호로 207 지하)



경기도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의 역할과 필요성

✦ 일시 : 2022. 12. 06. (목) 15:00-17:00
 ✦ 장소 :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 (지하1층)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공동체라디오네트워크(구리, 성남, 수원, 연산, 화성)
 ✦ 협력 : 경기도의회-경기시정자미디어센터

일정

시간	부대	소요 (분)	진행순서	비고	
15:00	개회	15:05	5	개회인사 최윤선 기획팀장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15:05	15:20	15	20	김달관 의병 경기도북부문화재단 박복분 의병 보건복지위원회 안병철 의장 한국공동체라디오연합회	
15:20	주제발표	16:05	45	정석욱 본부장 단원FM [공공]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역할과 필요성 서지연 이사장 SoundFM [민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역할과 필요성 정혜실 본부장 단원FM [민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역할과 필요성 최정 민간형 공동대표 경기연안문화재단	15분씩
16:05	토론	16:40	35	토론1 허정 정책이사 [네트워크]미디어센터협회 토론2 혜서연 대표 수원시미디어 라디오연동 토론3 이유선 본부장 기획팀장 경기도 문화정책과	10분씩
16:40	16:50	10	10	천체토론 토론참여자 질의응답	
16:50	17:00	10	10	폐회식 사진 촬영 및 폐회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031-495-0887 / <https://danwonfm.modoo.at/>

지역장애인 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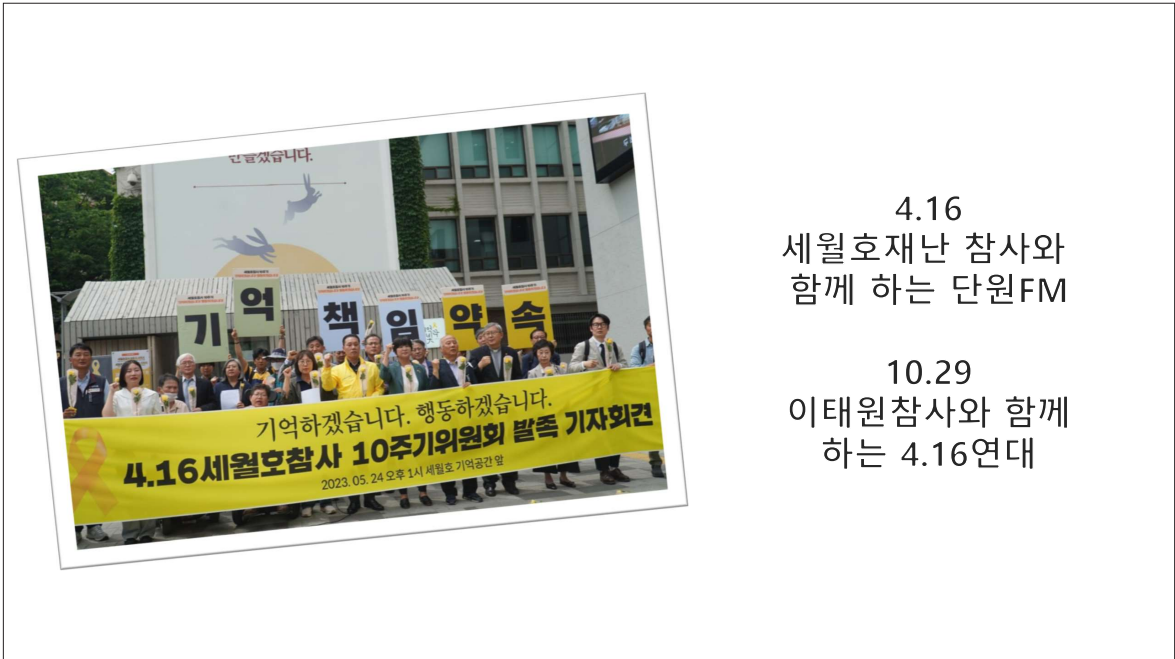


발달 장애인
· 사회적협동조합 공꾸는느림보
· 사회적협동조합꿈개공꾸는세상

청각 장애인
· 경기농아인협회연산지회

지체 장애인
· 단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상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연산나무들심는장애인야학






공동체미디어는 최일선의 공동체와 함께 !

‘최일선의 공동체’ 라는 개념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주로 빈곤층·유색인·토착민·소수자 집단이나 기후변화가 극심한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집단이다. 기후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최일선 공동체의 현실과 관점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백영경, 2022년,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시아)



전국순회 기후정의 미디어액션

○ 기간: 2022년 9월 7일(수) - 11월 28일(일)

○ 방송: 10개 지역 방송 (60분 또는 120분)

○ 송출: (유튜브) 공동체라디오방송, TBS 동시 라이브 (FM) 공동체라디오방송, TBS '우리동네라디오' 편성

*공동기획: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TBS**

공동체라디오방송	방송일시	장소	방송프로그램
수원FM	9월 7일(수) 19:00 - 20:00	수원역 문화광장	기후정의 광장을 열어야!
전주FM	9월 16일(금) 18:00 - 19:00	전주역 옛마중길	기후위기 시민화담
단원FM	9월 17일(토) 16:00 - 17:00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상 투게더 기후위기
남해FM	9월 23일(금) 18:00 - 20:00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아워두대	보물섬 남해 5분발전대
육천FM	9월 25일(일) 14:00 - 15:00	육천군 지용문학공원	지속가능 하지용
광주시민방송	10월 2일(일) 16:00 - 17:00	광주 동구 푸른길	즐긴 왕중왕전
관악FM	10월 9일(일) 11:00 - 13:00	서울대입구역 주변	오아시스 프로젝트 따라다
성남FM	10월 21일(금) 14:00 - 15:00	분당구청 잔디밭마당	기후변화세대공감 다함께 차차차
연재FM	10월 22일(토) 14:00 - 15:00	부산 온천천	라디오로 예고예고
서대문FM	11월 28일(일) 14:00 - 15:00	서대문FM 방송사옥	새로운 든독업!

한국공동체라디오 방송 협회 TBS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인류의 생존 문제로 미디어 액션은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시민참여 방송프로그램 기획”

“공방협과 TBS는 지난 3월 시민 참여방송과 공공서비스 방송 발전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송 ‘전국순회 기후정의 미디어액션’을 기획”

출처: 한국기자협회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133>)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를 글로벌(Glocal)
안산에서 주민으로 함께 고민하기



공동체라디오와 다국어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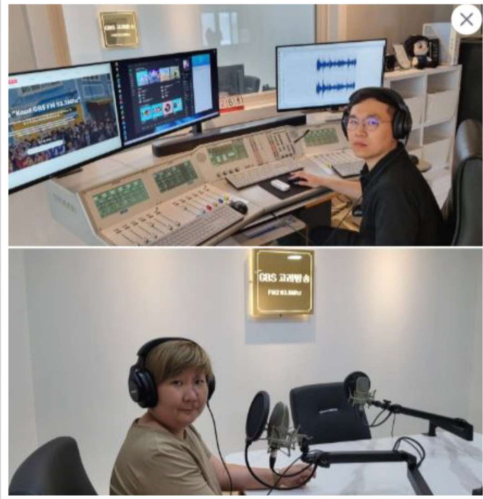
중국어 방송



네팔어방송



100개국 이상의 출신국 이주민이 거주하는 안산 다문화거리



고려인 마을 산하 고려방송

광주고려인마을이 지난 5월 광주에서 '제1회 세계고려인 대회'를 개최한 이후 전 세계 거주 디아스포라 고려인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와 고려인동포들이 운영하는 언론사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고려인마을과 산하 기관 특히 국내외 최초로 설립된 고려인을 위한 지상파 라디오 고려방송(FM93.5MHz) 설립과정과 운영상황, 그리고 고려인 마을 형성과정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news.com>)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안전문자와 재난안전방송
- 국적취득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화재경보기 (소방서)
- 코로나19시기 지원금 제외 (국적 없는 이주민, 난민 등)

416기독교나눔봉사단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이주민 소방용품 지원사업

23. 6. 12월 ~ 6. 30일까지

416기독교나눔봉사단은 세월호참사 이후 이웃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을 위해 다양한 소방용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p>진행 일정</p> <p>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30일(금)</p> <p>신청 발표 2023년 7월 둘째 주 중 (기관별 안내)</p> <p>배 분 2023년 7월~8월 중 (세부 일정 향후 안내)</p> <p>문의 416재단 나눔사업팀 정서희 070-4150-3730</p>	<p>지원 대상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이주민 100가구 (한국 국적이 없는 등록 및 미등록 이주민)</p> <p>지원 항목 화재 예방을 위한 · 화재경보기 · 소화기 세트</p> <p>신청 방법 이주민 지원기관의 추천을 통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apply@416foundation.org</p>
---	---

주최: 416재단, 안산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소방안전원

나이지리아 이주민자녀 화재참사 후 단원FM의 제안으로 시작된 재난사각지대 이주민 소방용품 지원사업 사례

'참변' 후에도 '이주노동자 아동'은 여전히 불안 / KBS
2023.05.05. KBS News

“인간에게 있어 거주 가능한 세계는 인간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지구의 번성에 달려 있다. 우리가 환경 독소들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중독의 걱정 없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물과 공기에는 우리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생명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상호 연결된 시대에 개인주의라는 경직된 형식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인간세계가 이 전체 지구에서 보다 작은 부분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재생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역할의 축소와 우리의 보다 주의 깊은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지구 말이다.

거주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인간 거주지의 범위와 생산을 제한해야 하며, 아울러 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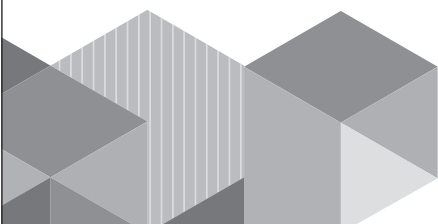
주디스 버틀러, 2023,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What world is this, 창비



3

지속가능한 돌봄 - 기술 연결망에 관하여

채석진(조선대)



지속가능한 돌봄-기술 연결망에 관하여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돌봄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 세미나

채석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023년 7월 21일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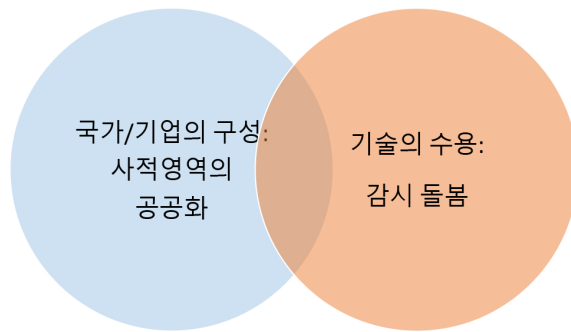
- 팬데믹 시기의 돌봄 위기
- 가정용감시기술 도입의 확산
- Matters of Fact => Matters of Concern => **Matters of Care**

[연구 문제]

- 팬데믹 시기 개별 가구들이 어떻게 상이하게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가정용감시기술을 도입하였나?
- 가정용감시기술의 사용은 어떠한 속성과 양식의 돌봄 관계와 돌봄 실천을 조립하였나?
- 어떻게 우리는 지속가능한 돌봄-기술 연결망을 구축할 것인가?



집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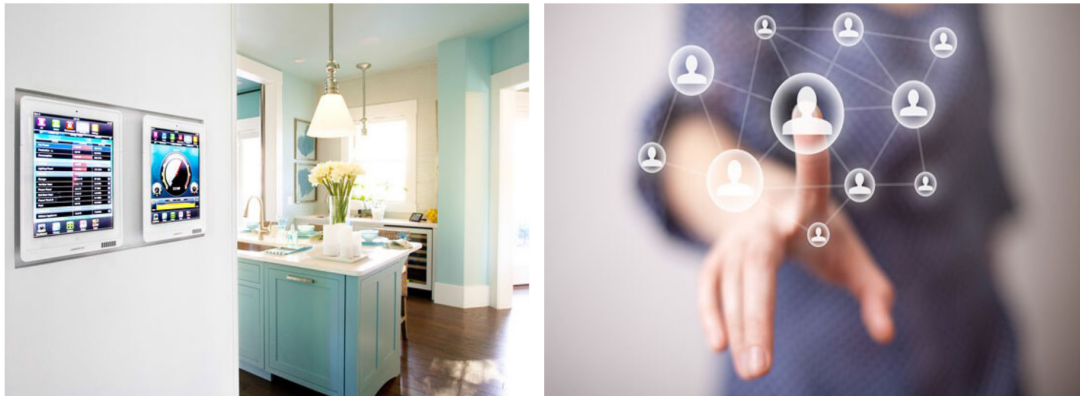
국가/기업의 집 만들기- 사적 영역의 공공화

“In short, the home is becoming a data factory”
(McGuirk, 2015)

“Camera becomes a proxy for human presence”
(Wise, 2004)

Information society as surveillance society (Lyon, 2018)

Surveillance capitalism (Zuboff, 2015, 2019)



McGuirk (2015) Honeywell, I'm Home!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New Domestic Landscape

기술의 수용/가정화 – 감시 돌봄 실천

안전에 대한 공포 + 부모 책임 = 감시 돌봄

신뢰에 대한 배신 (body, 2014)

“Sincere surveillance” 진실한 감시 (Makinen, 2016)

home technologies?



Allison and Peter Smithson (1956)
“This is Tomorrow” exhibition

“기술이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돌봄’으로서 가사일

“돌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수리하는 모든 것으로, 돌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환경을 포괄한다.”

(Fisher and Tronto, 199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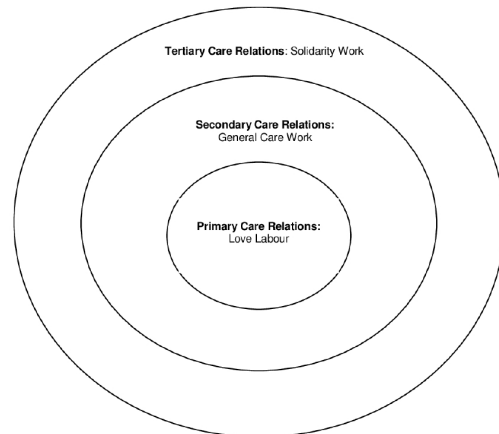
- 원자화/ 고립/ 자율적 주체 => **관계성, 상호의존성, 타인중심성**
- ‘분배의 평등’ => ‘돌봄 관계와 노동의 속성’

다양한 돌봄 관계와 돌봄 노동

- 1차 돌봄 관계 - 사랑 노동 (가족, 연인)
- 2차 돌봄 관계 - 우정, 연대 (직장, 친구, 친척)
- 3차 돌봄 관계 - 사회적 연대 (세금, 자원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돌봄 관계 간의 연결성

다양한 차원과 관계를 가로질러 수행되는 돌봄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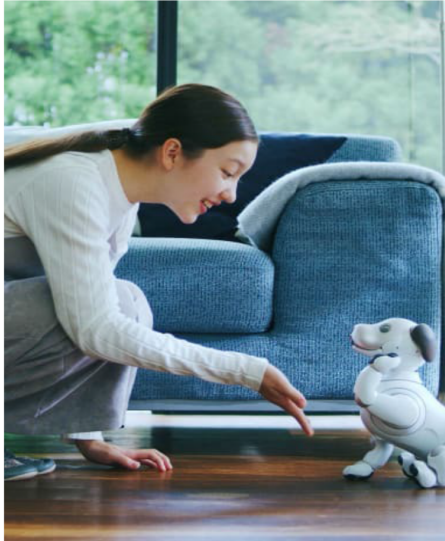


(Lynch 2007)



Matrix Design Studio, *Making Space: Women and the Man Made Environment*, London: Pluto Press London, 1984; p.43.
<https://www.guestprojects.com/Archive/making-space>

caring technologies?



스마트 기계를 둘러싼 문화적 상상과 기술적 실천

“자율적인 기술 행위성에 대한 추구는 인간 노동을 지우는 것으로, 완벽하고 비가시적인 인프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능 기계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산업의 필요와 결합한다”

(Suchman, 2007, p. 217)

“가정용 지원 기술은 특정한 일상 업무들을 “자율적인 행위자”(기술)의 평가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으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을 침식한다.”

(de La Bellacasa, 2011, p. 93)

“가정용스마트 돌봄 기술은 거대한 기술 체계에 연결된 ‘자율적인 인간’과 ‘자기 충족적인 가구’ 강조” (Murphy & Parry, 2021)

: 인간의 손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감각의 제거 => 돌봄의 부재 확대
돌봄 관계와 속성에 관한 이해 부족

세 가구 이야기: 팬데믹 시기 집과 돌봄 실천의 재구성

	현서네	준우네	수미네
직업	지역대학교수-전업주부 주말부부	맞벌이 엔지니어	자영업자
거주지	서울 자가 아파트	경기도 자가 아파트	서울 임대아파트
팬데믹 이후 변화	많은 시간 재택근무 (거의 모든 시간 집에 있음)	필요시 재택근무	가게 운영
부모 연령대	50대	40대 후반	50대
자녀	1명, 현서	2명, 준서, 준우	1명, 수미
코로나 시기 학년	초등 2-4학년	초등 2-4학년	초 5-중1

현서네 이야기 - “저는 아이가 제 눈 앞에 있는게 마음이 편해요.”

주말 부부 => 24시간 동거/ 전업 주부

이중 공간 (Doubling space) : 거실의 변신

“ 선생님들도 줌수업이 처음이셨고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어서, 계속 신경써줘야했어요.
 줌수업을 6-7시간 듣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실에서 아이가 줌수업 하는 동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벌써듯 옆에
 있어야 했어요. 수업 과목 확인해서 책하고 노트를 챙겨주고,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면 ‘지금 써야지’, 아이가
 자세가 틀어지면 ‘똑바로 앉아’. 동시다발적으로 말하면 선생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손을 들거나 채팅으로
 말해’라고 해주고”

24 시간 밀착 돌봄

“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8시에 아이를 깨워서 9시부터 수업 듣게 하고, 그 사이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해요. 12시부터는 점심 준비를 해서 먹이고 오후 수업 동안 시장 다녀오고. 수업이 끝나면 간식을 챙겨주고 나머지 소리 나는 집안일, 청소 기 돌리기 같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는 보통 아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치우고 아이 화상영어를 챙기고 책 읽기 같이하고. 아이 재우고 난 다음에야 제 자유시간이 되죠. 아이를 재우고 2-3시까지 저 혼자 티비도 보고 차도 마시다 자요. 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 재우고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항상 잠이 모자라요. 하루종일 식구들과 부대끼는 것만으로 힘들었어요.”

준우네 이야기 - “집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맞벌이 엔지니어 부부

“ 학교 돌봄과 방과후 수업이 없어지면서 남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시간에 티비 시청과 유튜브 시청이 늘어났어요. ... 티비 보다가 학원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못 나가는 때가 많았어요. 3학년 때는 회사에서 제가 전화 받기가 민망했어요. “준우가 또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연락해볼게요.”.... 하루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중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하루에 두 세통씩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원거리 엄마노릇하기

“일단 집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텔레비전, 모든 기기에서 유튜브에 접근이 되니까. 인터넷을 막는 방법은 호스트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학교 수업 유튜브 링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세이프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옛지를 막아도) 크롬으로 들어가면 안 막혀, 파이어 폭스로 들어가면 안 막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앱은 또 달라요. 앱은 앱대로 다른 어플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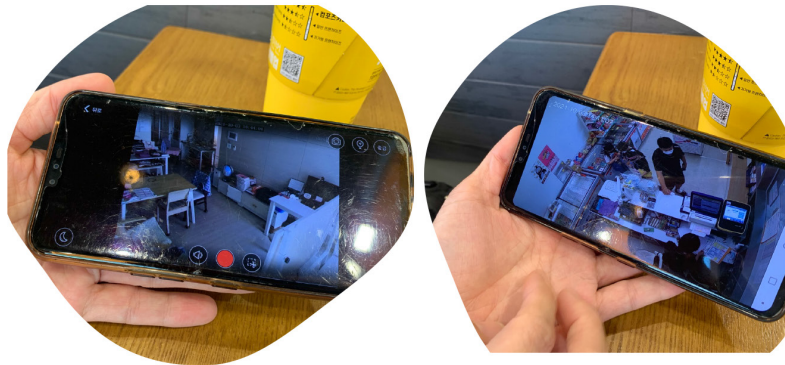
“저랑 연락하려고 카톡을 깔았어요. 준우가 알요금지여서 통화량 데이터 한도가 있으니까 집에서는 와이파이가로 연락을 하라고 카톡을 열어준 거지요. 엄마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연락 안 되면 카톡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유튜브를 보네. 기상천외해. 메신저에 누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본 거죠.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보던 것들이 자동으로 다 뜨니까”

수미네 이야기 -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부부

엄마와 아이 인터뷰 실시:

엄마와 아이의 이질적인 경험



아이의 사생활 지키기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하루는 제가 욕실에서 씻고 발가벗고 거실에 누워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거실 카메라로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꼼짝도 안하고 그냥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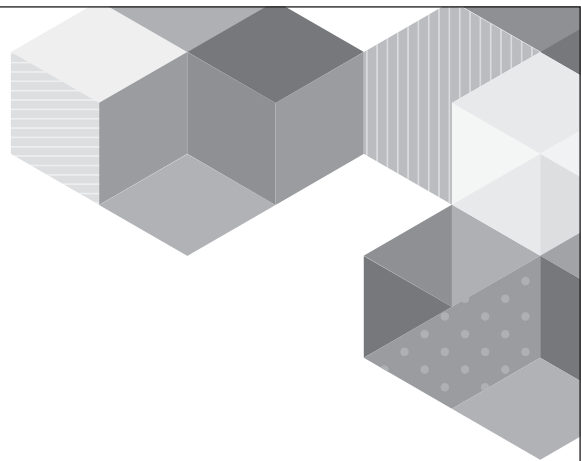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어요. 하루는 카메라를 풍선으로 가렸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카메라 렌즈가 흐려지게 하기도 했는데 며칠 후에 괜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컴퓨터로 해야 하는 영어 숙제 말고, 다른 것은 전부 제 방에서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방에도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땐 안방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는 카메라 달지 말라고 말해서, 결국 제 방에는 카메라를 뺐어요. 그 후로는 대부분 숙제는 제 방에서 해요.”

함의: 지속불가능한 기술-돌봄 연결망

- 집의 변신: Doubling Space & 거실 공간
- 여성화된 돌봄 노동: Shadow Labour/ Shadow Time
- 성별화된 노동 지속 및 강화
- 상이한 가구마다 요구되는 돌봄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
- 돌봄의 계급적 불평등 심화
- 취약한 가구일 수록 더욱 많은 감시 돌봄 실천 수행
- 현재와 미래의 돌봄 관계 침식: 불신을 기반으로 한 돌봄 관계
- 부모와 아이의 경험 차이: 아이들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며 주요한 행위자로 존재함. 이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 현재와 미래의 돌봄 관계 침식: 불신을 기반으로 한 돌봄 관계

References

- 채석진 (2022) 집, 일상, 감시: 팬데믹 시기 집의 재구성과 '감시 돌봄' 실천 연구. <한국언론학보>,66(6), 195-229.
- Boyd, D.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e La Bellacasa, M. P. (2011). Matters of care in technoscience: Assembling neglected things. *Social Studies of Science*, 41(1), 85-106.
- de La Bellacasa, M. P. (2017)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London, UK: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isher, B., & Tronto, J.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K. Abel & M. K. Nelson (Eds.),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pp. 35-62). New York, NY: SUNY Press.
- Lynch, K. (2007). Love labour as a distinct and non-commodifiable form of care labour. *The Sociological Review*, 55(3), 550-570.
- Lyon, D. (2018). *The culture of surveillance: Watching as a way of life*. Cambridge, UK: Polity Press.
- Makinen, L. A. (2016). Surveillance on/off: Examining home surveillance systems from the user's perspective. *Surveillance and Society*, 14(1), 59-77.
- Murphy, J., & Parry, S. (2021). Gender, households and sustainability: Disentangling and reentangling with the help of 'work' and 'care'. *Environment and Planning E: Nature and Space*, 4, 1099-1120.
- Suchman, L. (2007). *Human-machine reconfigurations: Plans and situated actions* (2nd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se, M. J. (2004). An immense and unexpected field of action: Webcams, surveillance and everyday life. *Cultural Studies*, 18, 424-442.
- 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NY: Public Affairs.



종합토론

권지담(한겨레신문)

백경흔(이화여대)

이숙정(중앙대)

이해수(옥천FM)

장은미(서강대)

정수경(국제법률경영대학원)

(가나다순)



한겨레 권지담 기자

기자 눈으로 본 '돌봄'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제작과정



01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02

보도 과정

03

요양보고서 그 이후



.....


.....

.....

.....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 ❖ 학원등록(2018년 9월)
- ❖ 240시간의 교육(이론 수업 + 실습)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2018년 11월)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2018년 12월)
- ❖ 요양원 구직 활동(2018년 12~2019년 1월)
- ❖ 요양원 취업 및 근무(2019년 1월~2월)



주간:09:00-18:30 야간:18:30-09:00

08:45 :출근,직원체조
 08:50: 아침직원회의
 09:00 :기저귀 케어
 09:30 : 목욕(2층:월-금) :목욕후 요양사들이
 | 2층근무요양사들이 1명씩 손발톱 정리해 드리기
 (3층 근무요양사는 면도해드리기)청소(쓰레기버리기)
 11:00 : 휴식(11:00-11:30)
 11:30 : 식사준비
 12:00 식사드리기
 앞치마 빨기,양치그릇 씻기
 12:30 : 식사,실긋이,빨래넣기.휴식(13:20-13:50)
 13:50 :목욕 (3층:수목금)-목욕후 손발톱 정리(2.3층요양사)
 14:20 : 기저귀 갈기
 14:50 : 프로그램
 간식 챙기기(프로그램이후에 준비하기)
 15:30 일지쓰기,휴식(16:00-16:30)
 16:40 식사준비
 17:10: 식사드리기
 18:00 :정리,정돈(변기통씻기,쓰레기버리기)
 18:30:퇴근,출근 교대, 물병담기
 19:00 휴식(19:00-19:30)
 19:30 기저귀케어,취침약,간식
 22:00: 휴식(22:00-03:00)
 23:20 기저귀케어
 06:00: 기저귀케어,(얼굴닦아드리기,소변통비우기)
 07:20: 식사준비
 07:50 : 식사드리기
 09:00: 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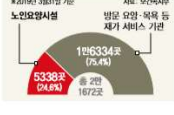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요양원은 '감옥'이었다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1부 돌봄orz ● 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orz는 사람이 언더 최정환은 모습(011)에서 더 낮게 옹크르 해소하던 상체를 내내만 일러다. 2009년 (연가제2)의 노55011보다 2018년 5월 노55027보다 노동자의 초상을 진행 내 데 이, 이번엔 '요양원돌orz' 보드를 통해 노인들과 '요양보사'들의 근간인 삶을 전하며 그려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현황



'요양보호사 취업' 한겨레 기자 한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 기록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건 뒷전
식사는 빨리...대변 묻어도 방치
동분 일고 효율적 수용·관리론
'살려고 아닌 죽으려고 오는 곳'

2월2일 새벽 6시 경기 부천의 요양원 204호 1102실 중순살기엔 할머니는 5년 동안 뒤 돌아서던 목걸이를 허투루 매는 시작하지 못했다. 요양원 최고령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목소리가 절정됐다. 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다.

2014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손실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딸이 주는 거 싫다.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음 딸이 알아줬다. 집에서 파우치인 할머니를 팔리게 할까? 그 발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꼭' 하고 열음으로 쓰러졌다. 기자가 힘을 쓰면 알기에 배를 끼워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추고,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는, 개안고 고집이도 할머니는 울음까지 있었다. 큰 딸에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어떻게든 눈물을 보지' 했다. '제발 날 좀 데 버려줘' 할머니의 울음 절정 조그맣게 할머니의 절박한 재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지기 며칠 전, 한 술값이라도 입에 넣어 보겠다고 다내달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다. 컵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재빨리 밥을 안 먹어서 살았어' 뜻을 안기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라졌다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를 전, 같은 방 95살 박해자(가명)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손실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앞면을 잡아 막기 시작했다. 다른 울음 거부방식 오리 고집이던 손실 할머니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을 남은 양만큼 서둘러 가져와 갖다 줬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손실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급세 개안이 치워졌다. 작은 채우 맛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침대다. 지난 한달 동안 뉴욕시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연반도 잠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동이 꺼지면 눈을 앓고,

전동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마비된 손가락만엔, 온의 거울을 돌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딸이 지난 17일, 손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시과 장지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마비받은 딸이 온 손 거울과 할머니가 돌아왔던 곳 모양인 주안 딸이는 기가차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골은 딸은 분지에 담겨 소각기통에 버려졌다. 2014호에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손실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손가락 막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집밖의 정순살이 들 열어 적인 목소리는 딸간 끝이던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2014년 요양원에 입소한 정순살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을 느껴 요양원에서 죽었다.

■ 요양원 근무 사원-이곳이 '요양원'이 제7 기지는 '요양원'부터 한달간 인원과 부천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요양보호사로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일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에서 이른 살기-실습과정 24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2018년 9월부터 교육을 받은 기자는 12월 시험에 합격해, 1월24일 요양원 취업에 성공했다. 2월부터 근무하다, 정순살이 50의 중환인 요양보호사 체제에서 '야방인' 같은 정순살 기저귀 요양원 생활을 혼자서 알아냈다.

■ 아침 6시 기상 및 세수 7:00분 아침 식사, 오전 9시 기저귀 교체, 9:40분 목욕,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2:00분 기저귀 교체, 3시간 식, 5:30분 저녁 식사, 6시 소독, 저녁 7:30분 기저귀 교체, 밤 11:00분 기저귀 교체.



포근함을 '하느님처럼' 의지한 요양원의 할머니. 경기 부천 요양원 입소사원 김은혜(가명) 70살이라는 벽지에 있는 로고에는 '하느님'이라고 적었다. 차체 관리인 김씨는 벽지에 새겨진 형태로 '하느님'이 어떤지, 좀 일 두루 재료를 염마-염마에 하나-한 단 염마에 기어 오르는 내음이였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곳에선 욕이 된다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1부 돌봄orz ● 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치에 따라 수는 727만 명 정도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스스로 자신의 욕을 돌보지 않으면, 재해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살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자기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2018년 3월 현재 152만6439명이 요양원도, 4만930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렇듯 젊은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인지? 국가가 지켜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때문에 풀기 위해 (한겨레)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현장에 뛰어들었다. 제1요양보호사 142명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2000여명 설문했다. 요양원 현직자 설문 8000건, 생가-생전 장기요양인 중 학생 편견이 30대 이상의 편견도 최초로 분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부 88개 권역 16개년 노인 및 보고서들 펼쳤다. 부는 권역 7개의 요양원에서의 현장 기록, 그리고 제1요양보호사들이다.

▶현장에서 이해

요양원의 하루는 본도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 세상이 질척거리기 어부



지난 2월2일 오후 3시에 경기 부천 요양원 노인들이 2층 카페에 나와 있다.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이다. 개인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비도 도용 없는 한에서 나올 수 없다. 노인들은 입소후 2시간 30분 정도 거실로 나와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

경기가(가명) 할머니 술기락에 반전을 올리고 있는데 뒤를주에서 사회복지사의 푸지할 이 날이었다. 낮 시간에 출근한 요양보호사는 4명, 다른 중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과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 배면 18명의 식사를 정겨이 했다. 18명을 일으켜 세우고 양치기마를 두르고 물기를 끼워주는 등 식사 준비부터

위생 장갑을 끼고 밥과 반찬을 주걱받쳐들 품쳐 입에 넣거나, 목에 밥을 받아 후후후 먹이는 식이었다. 알약을 기록처럼 만든 뒤 밥이나 국에 뿌려 한번에 먹이기도 했다. 기자는 한달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돌봄'을 제공하던 않았다. 그저 딱 필요하면 '쳐치'만 했다. 개인 속옷과 겹옷

이 있지만 대부분 남녀 구분 없는 공동옷을 돌려 입었고, 머릿도 모두 짧은 커브 머리로 잘랐다. 손이 딱딱이 부족하다 보니 요양원에서 '요양'은 사라지고, 효율만 남았다. 식사 시간 10분 전, 목걸이를 앞치마를 돌려매고 반쯤 울린 침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밥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이질적이었다. 기자가 한달 동안 지켜본 요양원은 사실상 수용소였다. 오직 죽어야만 '복소할' 수 있는 수용소. 노인 수용소의 공동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멸시켜 '대변 색깔'이 같은 집단으로 만들었다. 황정영 양식을 먹는 노인들의 대변은 양 색깔, 풀기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선으로 이해

온몸에 똥칠을 해도, 목욕은 정해진 날에만



인천 X요양원에 설치된 시사카에(CCTV)를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화면. 요양원 곳곳에 설치된 시사카에는 24시간 돌아간다. 낙상하거나 배회하는 노인들 확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쉬는 중에도 눈을 시사카에에 두어 한다. 권자단 기자 gon@hani.co.kr

간혀있는 답답함은 종종 '폭력'으로 분출됐다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피가 날까 턱 아랫부분은 면도를 포기했다. 배터랑이 아니면 혼자 기저귀를 교체할 수도 없었다. 양치제를 때도 칫솔을 풀거나 양치질을 너무 세게 뱉다 보니 양치를 사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식판을 얻을까봐 별도의 서랍장을 가져와 그 위에 식판을 놓고 밀착감 차 떨어져 먹일 정도였다. 치매 환자들의 과민 반응과 폭력성은 일몰이 다가올수록 심해졌다. '석양중후군' '일몰중후군'이라고 했다. 하루의 끝이 생의 끝으로 여겨지는 걸까. 폭력은 쉽게 진열됐다. 복수 할아버지 열 참대인 80살 허태식(가명) 할아버지의 치매도 나날이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밥 빨리 줘" 식사시간 10분 전 복수 할아버지가 참대 난간을 흔들기 시작하자 태식 할아버지도 밥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왔다. 두 사람의 인양이 싸움으로 번질 뻔한 적도 있었다. 복수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태식 할아버지가 살기 먼 눈으로 복수 할아버지를 노려봤다. "짜리고 이 새끼야 가버릴 거야". 치매가 심할수록 가족의 방목은 적었다. 요양원 근무가 끝나갈 무렵인 2월4일 태식 할아버지의 부인과 딸이 처음 요양원을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가족을 안내하는 기자의 목살을 잡으려고 발버둥쳤다. "일대 제대요? 치매 약을 먹어서 이럴 리가 없는데..." 풀리보게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10분도 머물지 않고 떠났다.

수치심을 수박에 없다. 같은 밤의 노인들은 한 세트로 같은 날 목욕을 했다. 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기저귀 0.5-1m짜리 네모난 욕장 매트 위에 걸고 복도를 지나 욕욕실로 이동한다. 조그만 욕장 매트는 물을 다 가라기엔 턱없이 작았다. 욕욕 중 면회자가 있어도 예외는 없다. 요양원 근무 마지막 날인 2월28일 86살 평화속(가명)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목욕을 위해 발가 벗은 89살 신이속(가명) 할머니의 울을 가려 주지 않았다. 회수 할머니의 아들이 이속 할머니 옆 침대 앞에 앉아서 고개를 돌렸다. ■ 죽으려 오는 곳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산 평균 나이 87살 아픈 노인들은 70대부터 100대까지 나이와 상태는 달랐지만,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절에선 모두가 같았다. 노인들은 요양원에 오래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바빠지만 애하고 나는 밥도 안주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자꾸 서러워 눈물이 나오. 얼마 생각에 눈물이 나오." 2월25일 최고령자 방인 104세에 사는 97살 최마리아(가명) 할머니가 호르노기 시작했다. 미자 할머니 손에는 보라색에 흰 무늬 수면양말이 썩어 있었다. 치매 환자인 미자 할머니가 기저귀를 풀어 똥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원은 1년 365일 할머니 손에 수면양말을 썩어왔다. 노란 테이프가 손목에 칭칭 감긴 수면양말 위로 환자영양식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던 미자 할머니는 기자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는 여자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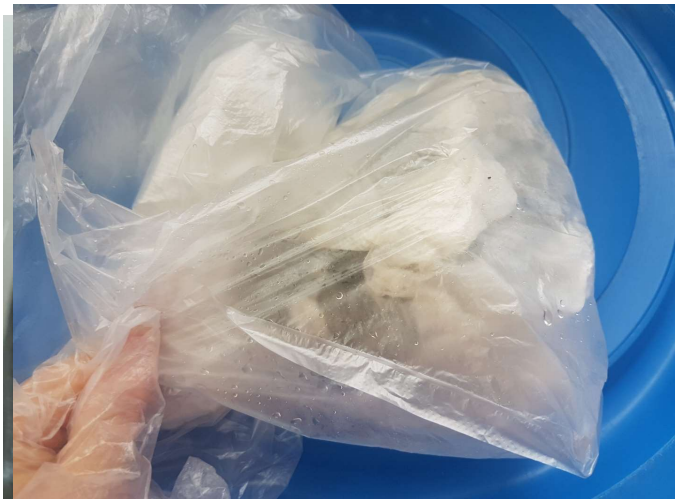
인천 X요양원에서 식습관 기저귀를 노인에게 기저귀 원시 영양제 먹음 함께 먹여주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양원인은 식습관 기저귀를 갖는다. 권자단 기자 gon@hani.co.kr

대한민국 영양보고서가 나오기까지

- ❖ 매일 밤 영상일기 촬영 및 하루 기록
→ 115개의 녹취와 100장의 취재일기
- ❖ 녹취 및 사진 1천장
- ❖ 경남, 강원, 충청, 경기, 서울 등 전국 14명 인터뷰
- ❖ 방문요양보호사 216명 설문조사
- ❖ 장기요양기관 830여곳 점검보고서 6천장 분석

79살 최교실(가명) 할머니는 팔약근에 힘이 없어 스스로 변을 보지 못한다. “똥 나온다, 똥 나와... 계속 나와. 선생님, 이것 좀 버려주세요.” 목욕 나간 교실 할머니의 침구를 정리하고 있던 기자를 동료 영양보호사가 급히 찾았다. 구멍이 뚫린 목욕 변기 아래로 초록색 똥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영양보호사가 아랫배를 누르자 5분 동안 대변이 쉬지 않고 나왔다. 포도 3송이보다 크고 묵직한 변은 2kg 아령보다 무거웠다. 목욕 때면 영양보호사들은 할머니의 배를 눌러보곤 했다. 이날 할머니가 본 대변은 자그마치 10일치였다.

돌봄의 민낯



“앉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한겨레 5월 15일자 중 일부)

‘이력서 쓰기’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의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학력에 어떻게 써야 해요?”
 “경력란에 ‘돈가스’라고 쓰면 안 되고 ○○휴게음식점이라고 쓰세요.”
 수강생들은 보험·화장품 방문판매, 식당, 제조업 생산라인, 마트 등
 교육원에 오기 전 대부분의 서비스 판매직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에 근무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노년에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던 수강생들은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자격증을 따면 ‘전문직’이 되고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수강생들의 꿈은
 요양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부서져 내렸다.
 노인 돌봄과 빨래, 청소, 주방일 등 육체노동에 허덕였고,
 치매 노인과 보호자들에게 치여 감정노동까지 감당해야 했다.
 ‘식당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지만, 그것이 존중받는 삶을 의미하진 않았다.
 요양원 원장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전의 삶과 다를 게 없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162만명인데도
 실제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1만명뿐인 까닭이다.

부당업무

주로 요구받는 부당업무는?(복수응답) (단위: 명)



주로 하는 의료행위는?(복수응답) (단위: 명)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부당업무 요구 때 대처법은? (단위: %)





정부

전주 상산, 안신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전주-경기교육청 '기본형 비합' 때문 중등 교육과정 조정... '합의 대응 불가' 반발... 서울은 이르면 내달 초 발표

문 대통령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하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한겨레

hani.co.kr

김정은, 공황서 시진핑 영접-환영행사 뒤 정상회담

중·북 정상 11년 만에 방한 도끼... '외위상 중립' 정세에 환영

이보

김정은, 공황서 시진핑 영접-환영행사 뒤 정상회담

이보

김정은, 공황서 시진핑 영접-환영행사 뒤 정상회담

김정은, 공황서 시진핑 영접-환영행사 뒤 정상회담

코로나19 무덤 = 돌봄 현장?

한겨레

PICK ①

[단독] 60대 이상 코로나 사망률, 일상회복 뒤 되레 늘었다

병상 여유 있다면서 왜?...요양정신병원 확진자 '코호트 격리'

한겨레

PICK

작년 사망 29% 요양병원...땀질식 대책에 스러진 '고위험군'

한겨레

PICK ①

[단독] '과학방역' 환기, 가이드라인에 예산·인력 계획은 없어



THANK YOU



토론문

백경훈(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강사)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돌봄'이라는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마련해서 돌봄 중요성을 환기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타 학문분과 연구자로서 돌봄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학문과 결합할 때 새로운 연구 결과와 지식이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신정아, 한희정 - “미디어 재현과 돌봄 가치의 실현”〉

논문의 깊이 있는 돌봄에 대한 이론 논의가 인상 깊습니다. 매우 탄탄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연구에서 활용하던 문헌들이 미디어 콘텐츠 분석에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콘텐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궁금증도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비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돌봄 가치의 실현 등, 이때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다중적 위기 중 가장 본질적 위기는 '돌봄위기'이며(Fraser, 2023), 돌봄의 문제를 미디어 분야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봅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남성의 특권적 무책임이나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민주적으로 돌보는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책적 관점에서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넛지' 개념처럼,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재현할 때 돌봄 가치를 깨닫는 방식으로 기획이나 소재 선정 등이 면밀히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인식을 부드럽게 변화시켜나가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디어가 특정 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 도구화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미디어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성차별적 의미와 가치가 주관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보도를 예로 보아도, 취재 결정, 취재 방향성 기획, 전문가 인터뷰 선정, 인터뷰이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선택 등 모든 과정에 주관적 개입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미디어 재현 연구에서 결과로서 제작물에 대한 내용 분석과 더불어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과정이 어떠한지 여쭙고자 한다는 여성주의 관점의 논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석진 - “집, 일상, 감시”〉

논문의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디어가 가정 감시기술로 돌봄과 연계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대상이 될 수 있구나 새롭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정용 감시기술의 매개를 통해 감시 돌봄이 확산되는 과정을 경험을 근거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었는데, 논문은 가정용 감시기술에 있어서 고민을 심화시킵니다. 돌봄은 관계적 실천인데 무한한 연결의 가능성을 가진 미디어 기술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천적 관계망을 축소시키고, 감시적 연결을 강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후기 산업 맥락에서 여성 고용이 맞벌이 규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책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돌봄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고, 시장에서 상품화되는 비중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감시용 기술이 돌봄에 활용될 가능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공적 영역에 돌봄실천이 가능한 공적인 ‘공간(space)’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돌봄관계를 맺고, 돌봄을 실천할 공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동 돌봄에서 ‘서비스에서 공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를 넘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모든 아동 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돌봄권으로 해석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공적 돌봄 공간의 확장을 전제로 기술 도입이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용 감시기술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부정적 경험도 있지만, 독거노인 등 특정 상황이나 특정 집단 대상으로 긍정적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연구에서 취약계층에서 감시돌봄이 더 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집중적 돌봄은 상층에서 가능하고, 집중적 모성도 중산층 이상 규범이고, 취약계층은 돌봄공백, 돌봄결핍과 연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계층에서는 감시기술이 돌봄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술 사용에 대한 돌봄윤리적 관점의 논의가 세대/계층/인종 등의 범주를 고려해서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연구자로서 미디어 기술이 가정에서 돌봄을 매개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미래 기술이 앞으로 돌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계적 비관계적 돌봄노동 혹은 양육적, 비양육적 돌봄노동을 생각할 때 비양육적 가사노동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적,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돌봄은 최대한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하이 터치, 하이테크” 등의 모토로 교육계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가정용 기술 뿐 아니라 기술이 교육이나 돌봄분야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물음들이 떠오릅니다. 좋은 연구를 통해서 돌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한 토론문

이숙정(중앙대)

첫 번째 발제문 <미디어 재현과 돌봄의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 난잡한 돌봄 공동체, 돌봄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돌봄을 통해 인격체로 성장하고 돌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존재”이며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관점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합니다. “돌봄은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수리하는 모든 것”이며, “돌봄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서로 얽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이라는 관점은 돌봄의 의미와 돌봄 수행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합니다. ‘난잡한 돌봄 공동체’나 ‘친족 공동체’ 개념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서로의 취약성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돌봄의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돌봄의 부담이 부당하게 전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돌봄의 민주주의 관점은 돌봄이 정치적 의제여야 하며 윤리적 실천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드라마 <나빌레라>를 보면, 덕출과 해남, 덕출과 해남과 자녀들, 그리고 덕출과 채록 등 서로 얽힌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의 안위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돌봄의 양상과 실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께서 분석하셨듯이, 드라마 <나빌레라>는 덕출과 채록의 관계를 통해 돌봄 공동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아내이자 엄마인 해남 또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돌봄의 관계와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돌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는 여전히 돌봄의 부담을 전담하는 자로 재현하고 있고 ‘엄마’도 돌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함을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덕출이 자신의 오래된 꿈을 자각하고 이에 도전하는 모습은 자신을 돌보는 돌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해남은 자신을 돌보는 돌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돌봄은 나 자신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돌보는 일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세 가지 유형의 돌봄이 균형을 이뤄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는 시장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자와 돌봄 노동의 경계에 대

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돌봄은 비시장 영역의 활동으로, 엄마/아내의 전담 하에 가정 내에서 책임져야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돌봄 노동자라는 이름의 다른 여성들이 가정 내 돌봄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돌봄 노동자’라는 용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건강관리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합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이 가족을 위해 무급으로 수행해왔던 돌봄이었기에 그 돌봄을 대신하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또한 높지 않습니다. ‘돌봄 노동자’, ‘아이돌보미’, ‘간병인’ ‘돌봄 노동’ 등의 용어에 내포된 돌봄의 의미는 <돌봄선언>이나 <돌봄 민주주의>에서 제안했던 돌봄의 관점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시장 영역에서의 돌봄은 체계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돌봄 노동자가 더 높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러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경우 돌봄 노동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돌봄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돌봄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돌봄 수요자 중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의 돌봄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돌봄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돌봄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 또는 문제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돌봄 제공자는 국가로부터 받게 될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집단일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취약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하며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돌봄의 윤리 또는 돌봄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돌봄정책은 여성과 국가라는 좁고 기울어진 마당을 벗어나 여성, 남성, 국가, 시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균형적이고 너른 운동장으로 돌봄의 새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송다영, 2022)는 주장에 주목하고 돌봄은 모든 시민의 책임으로서 “함께 돌봄의 수행성”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봅니다.

두 번째 발제문 <지속가능한 돌봄-기술적 연결망에 관하여>라는 연구는 돌봄과 감시기술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돌봄의 관계에서 상대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관찰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사례는 상대를 대상화하는 감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24시간을 내 눈 앞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례를 보면서 돌봄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의 목표는 자녀의 건강한 독립이라고 합니다.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육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연결망 안팎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의 목표가 독립이든 돌봄이든, 엄마의 밀착돌봄이나 감시기술의 활용은 양육의 목표에 반하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밀착돌봄과 감시기술을 활용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더라도 이는 돌봄이 아니라 감시라고 봐야 합니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기술에 의한 감시가 자녀의 감정과 사고,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방식, 가족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봐야 하고 나아

가, 감시, 프라이버시, 민주주의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기술을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선택한다면 창의적인 방식의 돌봄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더이상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시기술에 의존한 돌봄의 악영향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감시기술에 의한 돌봄을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창의적인 돌봄의 형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의 공백’을 손쉬운 감시기술로 메우기 보다는 “트러블과 함께”하면서 “창의적인 연결망 안에서 친족을 만드는” 방법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발제문 <재난의 시대, 돌봄의 가치와 미디어의 역할: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는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며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봄위기 담론은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돌봄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송다영, 2022). 방송미디어가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집단의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에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돌봄의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돌봄 위기에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집단을 문제적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발제문에 언급된 재난 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실제 사례에서는 돌봄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누가 왜 참여하는지,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 조건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최근 연구 사례(김은규, 2022)에서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담론 생산자로서 돌봄윤리, 돌봄민주주의, 돌봄정의에 관한 담론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가족 내 여성 중심의 사적 돌봄의 문제점, 시장 영역에서 돌봄 노동자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 국가책임론에 근거한 돌봄정책의 한계 등 돌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디어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돌봄 방식을 재현하거나 미디어 기술에 의한 돌봄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즉 돌봄 수행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미디어 재현을 지양해야 합니다. 돌봄의 다양한 수행 방식이 있음을 제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발성, 개방성, 재능기부, 관계성 등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운영(김은규, 2022)된다면, 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재난상황에서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옥천FM공동체라디오의 돌봄이야기

이해수(옥천FM공동체라디오)

소수자의 권익 옹호를 실현하는 지역밀착형 방송국. 옥천FM공동체라디오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이다. 지역에 사는 다양한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언제든지 필요할 때 놀러와 쉴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우리는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가 방송·미디어의 중심이 되었을 때’, 방송을 만드는 사람과 듣는 이가 서로를 돌보는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접하는 것 △내 주변에 사는 다른 이웃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듣게 되는 것 △재난 시 우리 동네의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지역에 사는 이를 돌보게 만드는 소통 창구가 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을 접하던 사람들이 다함께 즐기는 축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긴 방송을 들으며 그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 중심의 피해 사례를 접하던 청취자들은 우리 동네에 일어난 재난 현황을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했고, 우리 동네의 비 피해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한다. 옥천FM공동체라디오에서 활동하는 방송활동가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돌보고 있다.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옥천FM공동체라디오라는 공간 자체의 돌봄기능도 활성화되고 있다. 집에 가기 위해 항상 버스를 타시는 어르신들은 옥천FM공동체라디오에서 음료를 한 잔 하며 이야기 하러 오시기도 한다. 빠르게 걸으면 2분, 천천히 걸어도 3분이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에 위치도 적절한 듯하다. 처음에는 업무가 바쁜 것 같으면 멋쩍어하셨지만, 이제는 바쁘면 ‘바쁘구나, 할 거 해요. 난 쉬다 갈테니’라며 그저 그 순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뿐임을 이해해 주신다.

손으로 쓴 글씨를 타이핑 하고자 오시는 분도, 인세를 조금만 하고 싶은 분도, 화장실이 급한 분도 모두 라디오를 찾는다.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모여서 상의를 하거나 방송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옥천FM공동체라디오라는 공간이 조금은 편한 공간이 되었다는 게 체감된다.

특히 지역 내 청소년 공간 부족으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옥천FM공동체라디오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평소 방과 후에 갈 곳이 없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라디오에 놀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기간에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춘 공부방이 되기도 한다. 공공 도서관은 월요일이 휴관이고, 스타디카페에 하루종일 있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오른 물가 탓에 끼니를 굶고 스타디카페에 가던 청소년들은 알음알음 옥천FM공동체라디오 3층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약속은 5개. 첫째, 사용 전에 미리 말하고, 사용 다 하면 집 가서 연락을 남겨둘 것 둘째, 문은 반드시 잠그고 사용하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 것 셋째, 스튜디오 시설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 것 넷째, 다 쓰고 나면 사용한 시설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정리할 것 다섯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 난방 등은 최소한으로 사용 할 것.

다행스럽게도 바로 앞이 경찰서에 화기도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 회의를 가거나 없는 시간에 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라디오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은 청소년들은 시험기간 야근을 권장하곤 한다. 공부를 하는 동안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상의하고 싶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시무룩해진 청소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각자의 할 일에 전념하곤 한다.

옥천FM공동체라디오는 언제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방송국이 되고자 한다. △나와 우리 동네의 이야기가 중요한 소재가 되는 곳 △나와 내 이웃의 삶과 밀접한 소식을 전하는 곳 △방송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곳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옥천FM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한 지역 미디어가 지역 사회의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돌봄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

장은미(서강대, 미디어융합연구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을 경험하였고 이를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공간 속에서 돌봄을 미디어와 관련하여 다층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돌봄의 주체 혹은 돌봄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때 공동체라디오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 기반의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의 현장감과 고유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에 기반한 지역 고유의 돌봄실천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원FM공동체라디오의 정혜실 본부장님의 발표는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정본부장님의 현장 경험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 재난 시 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재난 후 트라우마 치료활동’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산공동체미디어에서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는 특히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네트워킹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자료에서 제시한 청각장애인과 네트워킹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활동 양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저의 학문적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신정아, 한희정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돌봄을 미디어 재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돌봄의 개념을 다양한 이론적 조류들 속에서 정리하시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돌봄 개념을 도출해, 두 편의 주목할 만한 미디어 콘텐츠를 꼼꼼히 분석하셨습니다. 하나는 드라마고 하나는 다큐멘터리라 장르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천착하시는 ‘난잡한 돌봄’을 해러웨이를 경유하여 이것이 당대의 한국 미디어 재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해러웨이가 〈트러블과 함께하기〉에서 제시한 ‘친척 만들기(making kin), 실뜨기, 퇴비(compost), 응답-능력, 테라폴리스’ 등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

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해러웨이의 논의의 핵심은 지구의 모든 크리터(critter)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테라폴리스’라는 은유에서 포착할 수 있듯이 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러웨이의 쓸루세 논의는 인류세와 자본세 논의가 가지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관련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여기서 해러웨이가 제안하는 ‘친척을 만들자’(선생님께서는 ‘친족’으로 표기하셨고 역자인 최유미 선생은 ‘친척’으로 번역하셔서 전 번역자의 의도에 공감하여 친척으로 쓰겠습니다)는 인간 종 내의 관계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복수종(muultispecies) 간의 관계확장으로 전 읽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러웨이는 ‘포스트휴먼’을 대신해 탈인간중심주의의 형상으로서 ‘퇴비(compost)’를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했구여. ‘퇴비’는 거름으로, 박테리아가 죽은 유기체를 먹고 만든 배설물입니다. 이 박테리아의 배설물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작물을 키우기에 퇴비는 ‘삶과 죽음의 계속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해러웨이가 ‘퇴비’를 중요하게 제안하는 이유는 ‘복수종들의 삶과 죽음이 상호의존적으로 뒤얽힌 구체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러웨이의 ‘친척을 만들자’에서 포착될 수 있는 ‘돌봄’은 오히려 인간들 간의 돌봄보다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돌봄으로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자는 편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들도 그렇구여. 해러웨이가 자신의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인 이야기(SF)로 제시한 ‘카밀 이야기: 퇴비의 아이들’ 역시 복수종 간의 관계맺기로 읽힙니다. ‘난잡한’ 돌봄 역시 종을 초월하는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선생님께서도 이미 설명하고 계시구여. 이러한 맥락에서 <나빌레라>와 <나는 마을 방과 후 교사입니다>에서 포착되는 돌봄 논의는 모두 인간들 간 돌봄 이야기인데 이를 해러웨이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신 선생님의 이유와 문제의식 등이 궁금합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돌봄 가치’를 통해 읽어내고자 세가지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미디어콘텐츠에서 돌봄관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다시말해 돌봄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가? 둘째 미디어에서는 어떤 돌봄 수행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돌봄 노동이 주로 얘기되고 있는가? 셋째, 만약 비가시화되는 돌봄노동이 있다면 이는 무엇인가? 즉 돌봄 공백은 없는가?인데요, 저는 이를 ‘돌봄의 주체, 돌봄의 내용, 비가시화되는 돌봄’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분석에서는 이 세가지 분석틀에 의한 분석 결과 이외에도 ‘공간’을 매우 비중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레교습소, 다른 하나는 마을방과후교실이 열리는 터전인데요. 그렇다면 분석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볼 때 공간에 대한 논의는 앞선 분석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해러웨이를 경유해 확장하고자 한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여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꼼꼼한 분석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보는 미디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정수경(국제법률경영대학원)

먼저 돌봄을 미디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네 분의 발제자에게 감사드린다. 신정아, 한희정의 발제는 미디어가 재현하고 있는 돌봄의 분석을 통해 돌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실에서 수행되는 돌봄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적 돌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어 미디어가 돌봄의 구현과 확장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혜실의 발제는 ‘미디어가 돌봄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재난의 시기에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곤층, 이주민, 장애인 등에 대해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게 함으로써, 주류 미디어가 간과한 돌봄의 공백을 드러내고 ‘거주 가능한 공간’에서 미디어가 돌봄의 주체로 기능하면서 전지구적 문제를 마을 단위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왜 돌봄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인 예시로 설명하여 울림이 크다고 하겠다. 세번째 채석진의 발제는 디지털 미디어와 돌봄의 연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돌봄이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증폭하여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가정이 디지털 감시기술을 통해 수익으로 환원되는 데이터 양산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감시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세 발제문을 통해 돌봄의 이론적 검토에서부터 현재의 실천적 수행과 미래의 문제점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세 발제에서 공히 지적하듯이, 돌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인간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이자 사회 유지의 주요 기관인 미디어가 왜 그동안 돌봄을 소홀히 하고 외면해왔는가를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상업화된 주류 미디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돌봄이 필요한 존재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유력하거나 ‘돈이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이들은 주로 재난이나 대형 사건·사고의 피해자 또는 구제 대상으로 등장할 뿐 미디어의 한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소수자나 피해자, 취약한 자들을 대상화해 온 미디어에게 돌봄은 ‘시혜’로 여겨질 뿐 인간 보편의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이해되지 못한다. 주류 미디어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 체계가 반영된 결과이다. 돌봄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여기는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는 국가는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위탁의 구조를 통해 팔고 사는 거래의 형태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배치되는 돌봄 제공자와 받는 자는 돌봄 본연의 가치인 상호의존적·상호존중적·상호평등적 관계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나마 돌봄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루어야 할 공공 미디어들이 최근 들어 현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부터 서울시는 10년간 지속돼온 마을 미디어 사업을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BS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을 단행하여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지역민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중단시켰다. 또한 수신료 분리 징수 전격 시행으로 재난방송과 장애인·국제방송 등을 맡아온 KBS와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해온 EBS의 재원 충당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돌봄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돌봄 인프라를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영미디어의 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기능 자체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한편 공영미디어를 사적 도구로 전취하려는 정치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기민한 행동과 동시에 미디어의 공공성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시급히 요청된다. 헬드(Held, 2006)가 지적했듯이 시장의 논리가 압도하는 현실에서는 교육, 보육, 요양 등 돌봄의 수행도 시장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장화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돌봄의 미디어를 확충하는 일은 그래서 공공의 확대이고, 따라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Tronto, 1993).

돌봄의 가치에 기반한 공영 미디어의 역할 재설정과 더불어, 미디어 주체들의 윤리의식 변화도 절실하다. 세월호와 미투, 팬데믹과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사회적 참사와 사건을 거치면서 인권과 재난, 감염병, 성폭력 등의 이슈에 대한 보도준칙과 실천요강이 잇달아 제정,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이 실제 보도 현장이나 미디어 재현의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보도 참사’를 겪은 그 해에 언론현업단체들이 주도하여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했지만 이태원 참사 보도 과정에서 보도 윤리의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었다. ‘자유’와 ‘정의’, ‘공정’에 기반한 저널리즘 윤리강령의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은 미디어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개별 사건을 사회·제도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미디어 주체들의 역량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존의 저널리즘 윤리를 ‘공평’과 ‘공감’, ‘포용’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의 윤리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Buzzanell, 2011). 저널리즘과 미디어가 사회적 제도로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통하는 윤리가 단지 언론인 개인이 갖춰야 할 품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사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주체들을 포함한 언론 기관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소통을 촉진하고 시민의 참여와 정치사회적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Jones, 2021).

돌봄의 윤리가 현재의 미디어 문제를 개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 행위를 ‘관계’와 ‘맥락’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서 개인의 실천을 사회적 관계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돌봄 윤리의 관점은 어떤 메시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인지를 명확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디어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시도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미디어의 생산과 일상적 소비, 제도와 환경 전반에 걸쳐 돌봄의 윤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uzzanell, P. (2011). Feminist discursive ethics. In G. Cheney, S. May, & D. Munshi (Eds.), *The handbook of communication ethics* (pp. 64–83). New York, NY.: Routledge.
-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J. (2021). Caring with the public: An integration of feminist mor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journalism ethics. *Journal of Media Ethics*, 36(2), 74–84, DOI: 10.1080/23736992.2021.1926255
- Tronto, J. C. (1993). Beyond gender difference to theory of care. In M. J. Larrabee (Ed.), *An ethic of care: Feminist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240–257).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